

권 용 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시 소득과 교육불평등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파워엘리트 계층 재생산 논의를 중심으로-

2007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박 혜 영

서울시 소득과 교육불평등에 관한
지리학적 고찰
-파워엘리트 계층 재생산 논의를 중심으로-

권 용 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年 5月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지리교육전공

박 혜 영

인 준 서

박혜영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대부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회에서도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자식의 삶과 계층이 결정된다는 것의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사회가 과거 전통시대 신분제도사회와 다름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불평등은 계층간 괴리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내의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점에서 사회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불평등의 문제는 여러 측면으로 연구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계층 재생산의 사회공간적 구조’를 고찰해 보았다.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소득과 교육성취 불평등의 관계를 연구의 설정에 따른 계량분석으로 계층이 재생산되는 것을 밝혔다. 또한, 계층의 ‘양분(兩分)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구조가 공간에 반영되어 양분(兩分)화된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했다.

연구의 가정에 부합하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파워엘리트 LQ지수가 가구 월평균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파워엘리트의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2. 가구 월평균소득이 서울대 합격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대 합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파워엘리트 LQ지수가 서울대 합격비율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파워엘리트 LQ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대 합격비율이 높다.
4. 파워엘리트 LQ지수,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5. 편상관분석을 통해 소득 변수의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6.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계층 특성에 따른 양분화가 공간적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통해 근본적으로 어떤 사회현상도 역사적 보편성의 맥락과 인간 삶의 토대가 되는 공간의 의미를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파워엘리트, 양분(兩分)화, 사회공간구조, 계층 재생산, 거주지 분화, 소득, 교육불평등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지역	3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5
II. 이론적 배경	9
1. 선행연구	9
2. 한국사회의 불평등	11
1) 계층의 불평등	13
2) 교육의 불평등	16
3. 공간과 사회불평등	19
1) 계층의 거주지분화	21
2) 학업성취의 지역격차	23
III. 서울시 소득과 교육성취에 따른 계층 재생산의 관계	27
1. 분석지표	27
1) 파워엘리트 LQ지수	27
2) 가구 월평균소득	33
3) 서울대 합격비율	36

2. 지표의 계량분석	43
1) LQ지수-소득 잔차분석	44
2) LQ지수-소득 회귀분석	48
3) 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49
4) 소득-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53
5)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54
6)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57
7) LQ지수-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상관분석	59
8) K-평균 군집분석	61
3. 양분(兩分)화된 계층 재생산의 사회공간적 구조	65
1) 양분화된 계층과 공간	65
2) 계층 재생산의 심화구조	66
IV. 결 론	69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파워엘리트 출신대학 점유율	6
표 2. 파워엘리트 직업분류	15
표 3. 직업별 파워엘리트 LQ지수	28
표 4. 파워엘리트 LQ지수	30
표 5. 가구 월평균소득	33
표 6. 인문계 고교 학생수	37
표 7. 서울대 합격자수	38
표 8. 서울대 합격비율	39
표 9.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잔차분석	45
표 10.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분산분석	48
표 11.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회귀분석	48
표 12.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50
표 13.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분산분석	53
표 14.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53
표 15.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54
표 16.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분산분석	57
표 17.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57
표 18.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상관분석	59
표 19.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편상관분석	60
표 20.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표준화변수	61
표 21.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군집분석	62
표 22.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군집평균	63
표 23.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유의확률	6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지역(서울시)	4
그림 2. 연구흐름도	8
그림 3. 파워엘리트 LQ지수	31
그림 4. 파워엘리트 LQ지수 분포도	32
그림 5. 가구 월평균소득	35
그림 6. 가구 월평균소득 분포도	36
그림 7. 서울대 합격비율	41
그림 8. 서울대 합격비율 분포도	42
그림 9.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잔차 분포도	46
그림 10.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잔차 산점도	47
그림 11.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분포도	51
그림 12.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산점도	52
그림 13.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분포도	55
그림 14.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산점도	56
그림 15.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군집 분포도	64

I.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중요한 문제로 언급하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여러 연구와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대부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개념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회에서도 완전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의 능력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자식의 삶과 계층이 결정된다는 것의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사회가 과거 전통시대 신분제도사회와 다름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사회불평등은 계층 간 괴리감을 형성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 내의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점에서 사회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불평등의 문제는 여러 측면으로 연구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계층 재생산의 사회공간적 구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개천에서 용 안 난다”는 등의 얘기가 공공연하게 회자된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신념은 설득력을 잃었다. “개천에서 용 났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잘사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말을 수긍하는 사회가 되었다.

교육의 불평등은 교육기회의 배분과 관련된 문제로 교육이라는 한정된 사

회적 자원을 ‘어떻게 해서, 누가 갖게 되느냐’의 과정과 구조를 분석해 봄으로써 교육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밀접한 연관성의 측면을 중요 관심으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생태적 요인, 문화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회계층은 개인의 교육기회 뿐만 아니라 교육성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교육성취 결과는 직업적인 성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득과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계층의 재생산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사회에서는 계층의 불평등 문제를 양극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양극화는 이제 일반사람들에게 사회 전반에 당면한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의 양상을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되었다.

양극화란 일반적으로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데 ‘무엇이 얼마나 극화되었는지’에 대해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양극화라는 용어가 지칭 혹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이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아직도 공통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용어의 사용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 수사학의 하나라고 지적하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다. 이는 양극화라는 현상이 여러 층위의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김상호·김병선, 2006).

이처럼 양극화에 대한 개념정의와 공통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행되는 양극화 논의들은 개념의 혼용과 함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계층을 논하는데 있어 다분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전개 양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사회불평등 현상을 양극화라는 개념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사회계층의 구분과 계층 재생산

의 사회불평등에 관한 논의에 있어 양극화가 아닌 ‘양분(兩分)화’ 개념을 사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양분화란 인간사회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보편적인 계층 구분으로써, 사회계층을 지도층과 그 외의 계층(대중 또는 민중)의 두 계층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을 연구대상으로 소득과 교육성취 불평등의 관계를 통해 계층이 재생산 되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계층 재생산의 불평등 논의를 양분(兩分)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층의 양분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회구조가 공간에 반영되어 양분화된 공간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사회불평등과 계층의 재생산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사회학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논의되는 계층간 문제는 지역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는데 사회학은 공간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에 대한 연구에 있어 제한점을 갖는다. 이에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지리학은 사회현상의 공간적 의의를 밝힘으로써 사회현상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 연구지역

연구대상 지역은 일정규모 이상의 부와 인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사회적 이슈인 불평등의 문제로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서울시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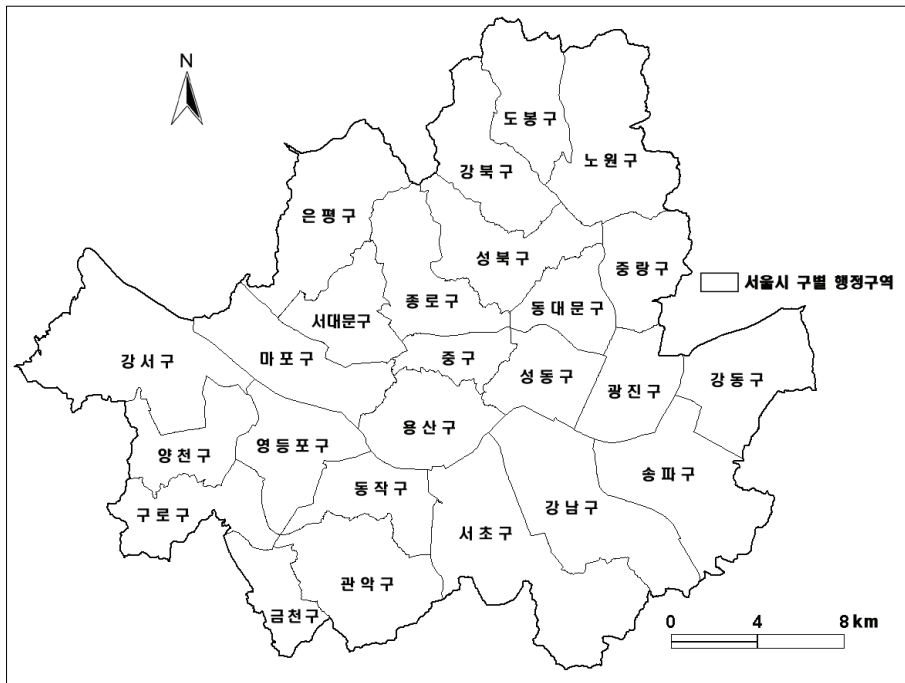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서울시)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로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르는 계층의 공간적 집중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으로 연구의 기본적인 요건이 내재한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은 우리나라 전체의 0.6%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의 1/4이 거주하는 자본, 권력, 정보의 중심지이다. 서울의 집중화 현상은 수도권에 팽창을 야기 시켜 2005년 현재 인구의 절반 가량이 서울과 수도권에 살고 있다.

또한, 서울은 이질적인 계층집단이 모여 있는 곳이다. 기업가들은 물론 행정고위관료, 정치인을 비롯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서울에 거주한다. 유력 정치인, 법조인, 고위 군·경찰 간부, 고위 공무원의 85% 이상이 서울에 거주한다. 그들 상당수는 강남구와 서초구에 거주한다. 전 인구의 약 2% 정도만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정치인의 23%, 법조인의 35%, 고위 공무원의 39%가 이곳에 거주한다(송복, 1994).

도시공간의 특성인 계층별 거주지분화 현상이 지역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서울은 ‘강남’과 그 외의 지역으로 인식된다. ‘강남’이라 일컬어지는 강남, 서초, 송파구의 3개 자치구의 인구는 서울전체 인구의 16%에 해당하지만, 서울시에 거주하는 지도층의 48%가 이들 3개 구에 거주하고 있다(조명래, 2004).

임석희와 이용우(2002)는 서울을 사례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규명하면서,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1990년대 초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자본의 유연화라는 특징을 가진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서울은 이러한 유연적 자본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는 공간으로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공고화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의 공간 반영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지역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소득에 기초한 차별적인 공간점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은 학군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평준화된 교육제도 아래 소득에 기초한 교육의 지역적 불평등을 알아보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연구를 위해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3.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성취의 차이와 이를 통한 계층 재생산의 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회계층을 파워엘리트 계층과 대중으로 나누어 고찰하며, 특히 사회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 중에서 소득이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계층을 파워엘리트와 그 외의 계층(대중 또는 민중)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이유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회구성원들을 지도층과 그 외의 계층이라는 보편적인 구분으로 분류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은 인간사회의 역사적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계층 구분이다.

소득을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삼은 이유는 소득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요소로서 소득을 통해 계층과 교육성취에 관한 문제를 분석해 본다는 것은 자본이 우리 삶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합격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학업성취의 지표로 삼고 계층 재생산의 근거로 보는 이유는 서울대가 타 대학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파워엘리트를 배출한 대학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파워엘리트 출신대학 점유율

순위	학교	배출 엘리트 수(명)	%
1	서울대	10,528	32.7
2	고려대	2,874	8.9
3	연세대	2,562	7.9
4	한양대	1,613	5.0
5	성균관대	1,148	3.5
6	경북대	922	2.8
7	부산대	886	2.7
8	경희대	686	2.1
9	중앙대	633	1.9
10	전남대	546	1.6

< 출처: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이규연 외, 2006, p.132 >

<표 1>은 국내 최대의 인물 데이터베이스인 중앙일보 조인스 인물정보에 수록된 인사 27만여 명 중에서, 31,800명의 파워엘리트를 선정하여 조사한 파워엘리트들의 출신대학 100개 중에서 10위까지의 자료만을 추출한 것이다. 31,80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10,528명으로 32.7%를 차지했다. 파워엘리트 열 명 중 세 명 이상이 서울대를 나온 셈이다. 고려대 출신은 2,847명으로 8.9%, 연세대 출신은 2,562명으로 7.9%를 차지하여 서울대의 압도적인 비율의 1/4 수준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서울대를 학업성취와 계층 재생산의 지표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불평등에 관한 문헌연구와 앞에서 제시한 지표들에 관한 통계자료의 계량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분석 자료들을 GIS를 이용하여 지도로 나타낸다. 논문의 1장은 서론으로서 1절의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절의 연구지역, 3절의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은 계층에 따른 소득불평등과 교육불평등에 대한 이론적 연구이다. 1절에서 불평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를 한 후, 2절에서 한국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고찰하고, 3절에서 공간과 사회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다.

3장은 사례연구를 통한 계량분석으로 1절에서는 서울시의 각 구별 파워엘리트 거주지 분포와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의 현황을 분석지표로 제시하였고, 2절에서는 1절의 지표들을 바탕으로 변인 간의 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다. 3절에서는 2절의 계량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계층구조와 공간구조를 ‘양분화’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4장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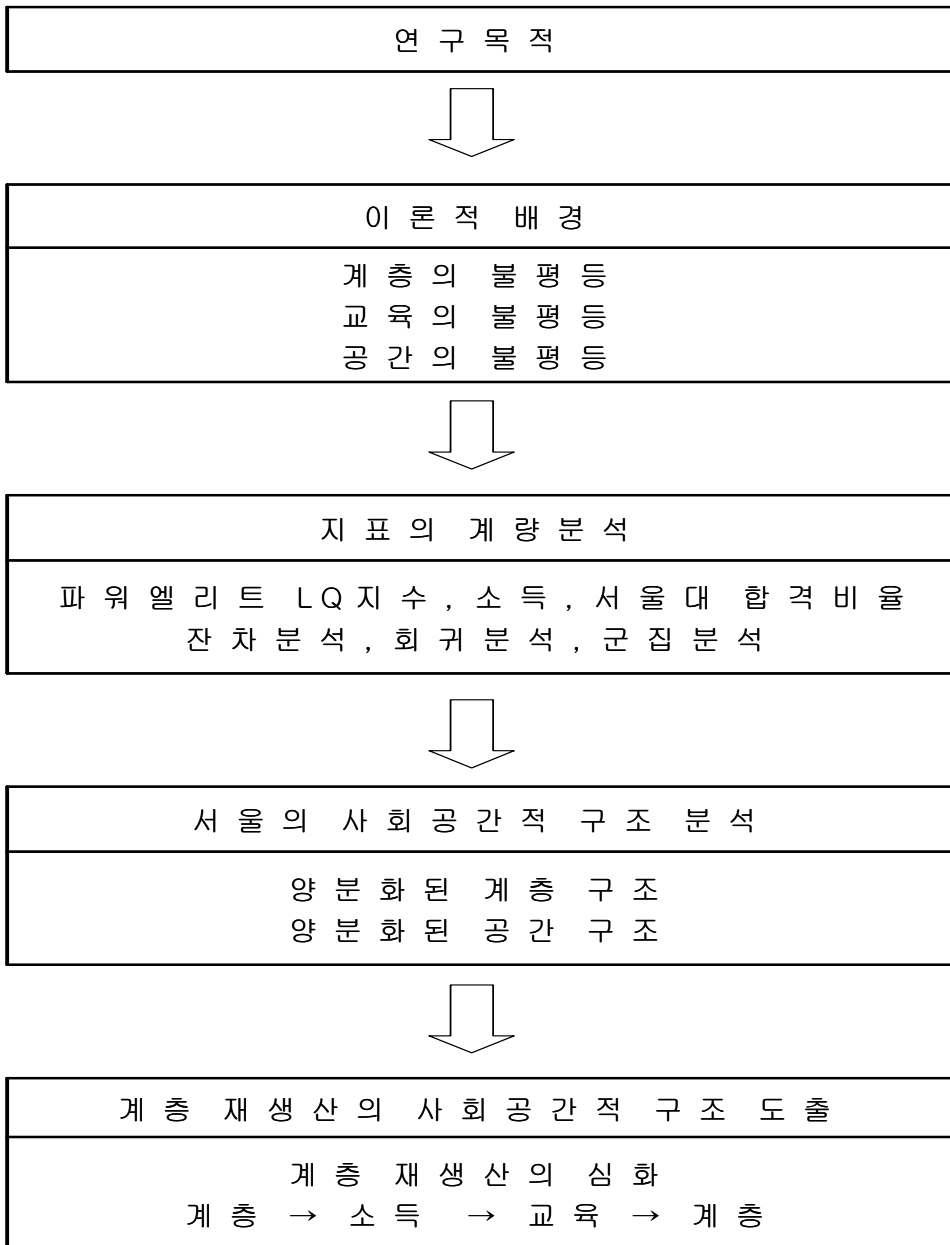


그림 2. 연구흐름도

II.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생의 교육성취에 관한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가정배경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보편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 회원국들의 고등교육지향에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Halsey, 1997)에 따르면 학생의 가정배경이 학생의 교육성취에 뚜렷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학교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arrell, 1997).

교육성취에 있어 가정의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 연구는 콜맨(Coleman, 1966)¹⁾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교육성취 불평등의 원인이 학교시설, 재정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배경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가정배경은 경제적 자본, 인간자본, 사회적 자본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자본은 자녀에 대한 물질적 지원 능력, 인간자본은 부모의 교육수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및 시간의 투입을 가리킨다(Coleman, 1988). 여기에 더하여 부르디외는 학교에서 선호되는 가치, 태도, 문화적 취향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자본도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부르디외, 1995).

콜맨의 연구 이래 미국을 중심으로 교육성취와 부모의 소득계층간의 관계

1) 콜맨(1968)에서 재인용.

를 밝히는 연구가 학교효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젠크스(Jencks, 1972),와 후설(Hauser, 1971) 등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업성취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교육성취에 관한 일련의 국내 연구들은 교육성취에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강희돈(1988)은 가구주의 학력과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은 비례관계에 있으며, 고소득층 일수록 일류대학을 강하게 선호함을 보여주고, 김부태(1995)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부모의 지원정도, 기대수준이 학생의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다. 김경근(1999)은 교육성취 결정요인으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아버지의 학력이나 직업과 같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임을 분석하였다. 이철호(2004)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거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성적이 좋으며,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사교육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안병철(2005)은 경제적 하위계층에게 학업부진이 집중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의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교육성취의 관계를 계층 재생산의 논의로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계층의 불평등 관계가 공간적인 불평등현상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실증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의 사회불평등 연구들에서 부족했던 사회 지도계층의 구체적 선별을 통해 사회구조를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간에 투영되는 사회구조에 대해 지리학적 접근으로 실제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19세기 사회학이 태동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 불평등은 경제적 불평등, 권력 불평등과 사회적 지위 혹은 명예의 불평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논의와 동일시된다. 이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경제적인 부가 경제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 교육, 문화 등 모든 사회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을 사회적 불평등 논의의 중심에 두는 것이다(신광영, 2004).

즉, 사회의 다른 많은 불평등 현상의 기저에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공통 분모가 존재하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서 다른 사회적 불평등 현상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와 달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과 합리성을 전제로 하는 자유경쟁으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사회적 지위획득의 과정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인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한국의 사회구조는 짧은 자본주의 역사 속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더불어 사회체제 내의 계층구조가 매우 복잡하고도 유동적이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 사회적 희소자원을 획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계층으로의 접근기회는 학력(學歷)²⁾이라는 조건을 통해 가능해진다.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고학력은 계층이동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논문에 등장하는 ‘학력’은 두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먼저 ‘학력(學歷)’은 ‘개인의 학교교육에 관한 이력’으로서 제도화된 교육과정 하에서 일정 단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였다는 ‘형식적인 경력’이 중시되는 개념이다. 한편 ‘학력(學力)’은 ‘학업능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학습을 통하여 획득한 지식이나 기술의 능력을 일컫는다. 김부태(1995) 참조. 본 논문에서는 양자를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하여 구분하기로 한다.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과도한 교육열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상급학교로의 진학열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 ‘타자와 구별되는’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는 일정한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확대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는 주로 양극화에 대한 문제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논의에 있어 혼동과 왜곡의 문제가 제기된다. 혼동은 중산층의 개념 정의와 양극화에 대한 개념설정 및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중산층은 새로운 계급으로서 사무직 노동자라 이해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수준이 중간쯤 되는 사람들로서 소득계층의 의미에서 중간층, 중류층, 중간계층 등과 같은 뜻으로 이해되며, 나아가서는 주관적으로 중산층 귀속의식을 갖는 사람들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의미의 중산층은 서로 다르며, 차원도 다르다. 중산층 몰락에 관한 논의에 있어 이런 저런 의미를 혼용하면서, 실업과 정리해고 등을 논할 때에는 첫 번째 의미로, 소득저하 및 소득격차 확대를 논할 때에는 두 번째 의미로, 몰락의 의미를 이야기 할 때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유팔무 외, 2005).

양극화라고 하는 것도 크게 보면 계급/계층 구조의 양극화가 있고, 소득수준의 격차확대 및 양극화가 있는데, 기존의 논의에서는 두 가지를 다 양극화라고 보면서도 그 증거를 논할 때는 소득격차 확대만을 증거로 이야기한다. 여기에 덧붙여 주관적 중산층이 축소, 감소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부정확하고, 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의미에서의 양극화는 양극화의 부차적, 간접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의 양극화를 가지고 첫 번째의 본래적 의미의 양극화를 논하고 증거로 삼는 것은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유팔무 외, 2005). 즉, 무엇이 얼마만큼 극화되었는지 연구자마다 다른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한다.

이처럼 사회불평등을 대표하는 양극화와 관련된 논의는 개념정의부터 합의되지 않은 채 논의가 분분하다. 그리하여 본질적인 의미와 관계없이 각 부문의 격차 확대 현상을 설명하는데 통용되면서 논의의 초점이 분산되고 왜곡된다. 따라서 사회불평등의 현상을 양극화의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극화의 개념 대신 ‘양분(兩分)화된 구조’의 개념으로 사회불평등과 공간불평등 현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양분(兩分)화³⁾란 어느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계층구분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회계층을 지도층과 그 외의 계층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분화의 개념은 한국사회의 계층을 설명하는데 있어 보편적인 틀로서 활용될 수 있다.

1) 계층의 불평등

현대 한국사회에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회구성원들이 있다. 각각의 사회구성원들은 분류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계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사회계층이나 계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르게 분석한다. 고전적 맑스(Marx) 계급이론에서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여부, 즉 생산의 사회적 관계의 위치에 따라 계급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반해, 베버(Weber)는 재산, 권력, 권위에 의해 계급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사회계층의 결정요인을 연구해 온 워너(Warner, 1949)는 사회계층의 분류기준을 직업, 거주지역, 수입, 교육수준 등을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지표로 보았다⁴⁾.

이와 같이 학자에 따라 계층 결정요인들은 다소 다르게 들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산과 수입, 교육, 계층의식 및 지위의 상징 등을 그 지표로 들고

3) 양분(兩分)화의 사전적 의미는 ‘둘로 나눈다’라는 일반적인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의 ‘양분화’는 연구자의 독자적인 개념으로 사회계층과 공간구조를 둘로 구분한 것을 지칭하기로 한다.

4) 유팔무(2005)에서 재인용.

있다.

사회계층에 대한 국내의 연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회성원의 사회적 지위를 객관적인 속성에 의거하여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사회계층이 사회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직업을 선정하고, 그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준, 직업에서 얻은 수입 또는 소득을 분류 요인으로 삼아 측정한다. 이들 각 요인의 정도에 따라 점수를 주고, 이들 점수를 합하여 사회경제적 지위(SES)⁵⁾의 지표로 삼아, 이 SES점수의 크기에 따라서 계층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계층을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계층과 영향력을 받는 계층의 두 부류로 나누어 계층의 불평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영향력이란 실제적인 정책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영향력 있는 계층은 파워엘리트이며 그에 상대되는 계층을 대중⁶⁾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양분화된 계층구조를 논의한다.

‘파워엘리트’란 사회조직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그 조직사회의 각종의 사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계층을 일컫는 말로 밀스(Mills, 1979)가 현대 미국의 고도의 권력집중 사실에 주목하고, 이 권력담당자를 파워엘리트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일반화되었다. 밀스는 파워엘리트의 개념으로 현대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분석·비판과 함께 총체적인 이론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미국사회의 폐쇄적인 권력구조의 본질, 대중사회로서의 미국문명, 민주주의의 허구성 등 미국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이후 파워엘리트는 사회적인 위계(hierarchy), 특히 정치상의 위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일반화되었다.

5) 사회경제적 지위를 일컫는 말로 ‘socio-economic status’를 줄인 말이다.

6) 본 논문에서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한국사회에서, 지도층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대중’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파워엘리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파워엘리트라는 개념은 단순히 높은 능력이나 위치 같은 어느 인간의 개인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파워엘리트의 개념은 사회제도 내에서의 영향력을 통해서 파악해야 한다.

파워엘리트 계층은 여론을 제기하거나 주도하고,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한다. 이들은 대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영향력을 발휘한다. 즉, 파워엘리트 계층은 우리사회를 실제적으로 움직여 가는 사회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대중은 정책결정에 영향력이 거의 없으며, 흐름에 주도되는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석, 1999).

본 연구에서는 파워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사회계층의 불평등과 계층의 재생산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정의되는 파워엘리트 계층의 구체적인 직업과 지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파워엘리트 직업분류

직업분류	직업	대상자
정.관계	공무원	4급 서기관급 이상
	정치인	국회의원, 광역/지자체 단체장, 정당 고위간부 등
학계	교육인	전국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국 2년제 대학의 부교수 이상
재계	기업인	국영, 민영 기업인, 벤처기업인 임원급 이상
	금융인	임원급 이상
법조계	법조인	변호사, 판사, 검사
언론계	언론인	차장급 이상 기자직, 부장급 이상 비기자직
의료계	의료인	전국 종합병원 전문의 과장 이상
문화예술계	문화예술인	수상경력 및 저명 대표작품이 있는 인물
기타직업	군인	육군, 해군, 공군 영관급 장교
	연예인	수상경력 및 저명 대표작품이 있는 인물, 연예활동으로 지명도가 높은 인물
	스포츠인, 종교인, 연구인, 전문기업인, 사회기관 단체인	각계 사회기관 단체장 및 기타 전문직업인

< 출처: 김창석, 2002, p.68, 이규연 외 2006, p.50 >

직업별 파워엘리트의 분류 기준은 각 분야의 인사들 중 사회조직의 중요한 지위에 있으며, 정책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급 이상으로 규정하였다.

2) 교육의 불평등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에 있어 교육불평등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교육불평등의 문제가 계층 고착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사회 이후 사회의 계층이동에 있어 교육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직업의 분화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 직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은 교육의 장에서만 습득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필요조건이 되었다. 이에 사회적 지위상승을 위한 고등교육에 있어 교육의 기회구조는 사회적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의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개인의 자질이나 성취욕구 보다는 부모가 지원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좌우된다. 이에 소득의 불평등은 교육에 의한 개인의 지위향상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층일수록 자녀의 고등교육의 기회는 높아지고, 고등교육을 받은 자는 상층의 전문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혜택은 가계경제력의 산물로 나타난다.

교육불평등에 관한 연구로 콜맨(Coleman, 1968)은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을 막고자 했던 초기 의무교육 현상을 반영하는 수준,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의 능력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단계, 세

번째는 동등한 시설과 교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인류가 이상으로 하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그 결과에서 동등해야 한다는 결과적 평등을 의미하는 단계이다.

한편, 김신일(2000)은 교육평등관을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으로, 후자를 교육조건의 평등과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허용적 평등관은 교육받을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평등관이다. 즉, 교육의 기회를 법이나 제도상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장적 평등관은 제도적 차별을 철폐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교육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교육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요인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평등개념이다. 교육조건의 평등은 “교육기회의 평등은 취학의 평등만이 아니라 평등하게 효과적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콜맨의 표현과 같이 학교의 교육여건이 동등하게 평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학교의 시설, 교사의 질, 교육과정 등과 같은 학교의 제반여건이 학교간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결과의 평등은 교육평등의 마지막 단계로 교육조건이 평등화되어도 교육결과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교육결과의 평등을 위해서는 능력이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상교육(compensatory education) 프로그램이 그 한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교육평등의 개념은 접근의 기회평등에서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양적인 평등에서 질적인 평등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교육결과의 평등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거나 그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마련을 위한 제도 또한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적자생존의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는 교육결과의 불평등을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육기회의 평등만으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담으로 김종엽(2003)은 교육기회의 평등이 두 가지 이유에서 교육의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학교 교육이 내면화하고 있는 교육적 권위와 교과과정이 특정 계급의 에토스(ethos)⁷⁾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과정은 특정 계층의 에토스를 반영하는데 그러한 교과과정이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디외(Bourdieu, 1995)가 지적했듯이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은 문화적으로 자의적인 것들이며, 실제로 어떤 계급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다. 즉, 교과과정은 전혀 중립적이지도 보편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이렇게 교육제도에 내장된 편차들은 하층계급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방해하고, 낮은 학업성취를 자기 책임으로 돌리게 하는 상징적 폭력을 행사한다.

또한, 김종엽(2003)은 교육적 성취의 핵심적인 관건이 가족을 통해서 전수되는 문화 자본이기 때문에 교육적 불평등은 여타 교육여건이 평등화되어도 관찰된다고 설명한다. 교육적 성취는 교육제도가 주입하고자 하는 아비투스(habitus)⁸⁾와 이전의 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아비투스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제도와 교육적 의사소통 안에 관류해 들어가 있는 계급적 에토스와 친근성을 가진 계급의 자녀들은 학업성취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고흥일(1996)은 교육불평등을 학력(學歷)의 상품화와 관련시켜 설명

7) 일반적으로 사회 집단이나 민족 등을 특징짓는 특유함과 관습을 뜻하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 주어진 단어.

8) 프랑스 사회학자 부르디외(Bourdieu) 이론의 핵심개념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 특정한 사회적 환경에 의해 내면화된 성향의 체계를 일컬음.

한다. 학력의 상품화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학력도 자본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는 현상이라고 말한다. 학력의 상품화는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하는 학력이고, 다른 하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으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의미하는 학력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전자의 학력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지니면서, 학력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성립시킨다고 본다. 즉, 학력을 소비하고 점유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들을 고찰해 봤을 때 자본주의 메커니즘 하에서 작동하는 한국사회에서는 교육기회의 평등으로는 근본적인 교육의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의 교육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 ‘학업성취’의 개념을 적용한다. 학업성취란 학교교육을 통해 학습한 지식, 지적능력,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한 학습결과의 총칭이지만, 일반적으로 학업성취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성적(成績)으로서 지적영역의 학습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3. 공간과 사회불평등

시·공간적인 존재인 인간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는 공간을 점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거주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슷한 지위와 특성을 가진 집단이 지역적으로 차별화하여 거주하게 되는 거주지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불평등이 지역적 격차로 표면화되고 가시화되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공간이 단순히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가 갈등하며 특정계급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적 공간이기 때문이다(최병두, 2002; Harvey, 1996).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공간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사회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불평등과 도시공간의 구조적 분화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연구를 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도시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김왕배, 2000; 김창석, 2002; 한주연, 2002; 신광영, 2003; 최은영, 2004a,b). 이들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공간은 부동산, 금융자산, 그리고 주거형태에 따라 불평등이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공간적 불평등이 또 다른 불평등의 인과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의 사회적 특성이 공간적 불평등을 가능하게 하고 재생산하는 중추적인 메커니즘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정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특정대학에 보다 많이 진학한다는 연구결과(김광웅 외, 2003) 그리고 교육 때문에 다른 학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다는 사실(이주형, 1989)은 공간과 교육을 통한 사회적 계층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간과 계층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은 드물다.

거주지분화 현상이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것은 분화현상 내에 지역별, 계층간 불평등을 내포한다는 사실에 있다. 거주지 분화에 따른 거주환경의 지역적 차별성은 사회적 관계의 재생산 문제와도 연결된다. 즉, 어떤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그 지역의 지위상징으로서 지역의 가치를 결정하며, 역으로 그 지역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Gibbard, 1941)⁹⁾.

9) 한울공간환경학회(2000)에서 재인용.

1) 계층의 거주지분화

오늘날의 사회에서 도시가 팽창하고 거주밀도가 높아지면서 주민 사이의 이질성이 심화됨에 따른 거주지분화는 도시 공간구조의 특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거주지분화는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는 노동의 분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통해 도시 내부의 공간이 기능에 따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분화되는 것이다.

거주지분화는 자본주의 경제 메커니즘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경제력에 기반하고 있는 사회에서 계층분화는 자본에 의해 형성되고, 이에 따른 거주지분화는 이것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즉, 공간 또한 한정된 자원으로 자본에 의해 차별적으로 점유되는 소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존스톤(Johnston, 1984)은 이러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주택은 가족생활의 은신처이면서 생활환경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상을 증진시키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복합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주택이 자신의 생활양식에 적합한 위치에서 사용가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고, 집단을 형성하는 경향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따라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거주지에 접근하는 것은 주도적 내지는 비주도적 일련의 선택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적 과정이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경제 메커니즘이 만들어낸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메커니즘 안에서 거주 이동의 결정은 현재 거주지의 만족도와 가족특성, 사회경제적 특성으로서의 가구의 생애주기, 교육과정, 직업, 소득, 주택유형 등에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거주지 선택의 배경은 거주지 분화의 원초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도시공간의 구조화와 거주지분화는 사회지리적 측면에서 볼 때 개인의 욕구들이 공간상에 집합된 결과이고, 자유

경제시장 하에서 일어나는 경쟁적 우위성이 공간상에 투영되는 과정이다¹⁰⁾.

사회계층별 거주지분화에 관한 국내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이기석, 1980; 이숙임, 1987; 도경선, 1994; 홍인옥, 1997). 이들 연구는 대도시인 서울에서 계층별 거주지분화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서울은 한국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가장 규모가 큰 도시이며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GDP의 약 22%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수도로서 정치와 행정을 포함한 한국사회의 대부분의 정책결정이 서울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서울에는 인구나 중요한 기능 및 역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도시보다 한정된 땅의 가치와 사용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은 사회계층과 거주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연구대상 지역이 된다(차종천 외, 2004).

거주지분화 연구에서 송명규(1992)는 지방공공재가 소득계층별 거주지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서울시의 행정동별 소득계층의 주거지분화 현상을 밝히면서, 고소득층일수록 학군, 공원, 지하철, 문화시설 등 지방공공재의 혜택을 많이 누리며, 고소득층의 주거지일수록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윤인진(1997)은 서울을 강남과 강북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계층간 상이지수를 통해 강남지역에 상류층과 중상류층 간의 상이지수가 강북지역에 비해 낮은 반면,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상이지수는 강북지역에 비해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기존의 거주지분화 연구에 뒷받침을 하고 있다.

10) 한울공간환경학회(2000)에서 재인용.

2) 학업성취의 지역격차

2004년은 좀처럼 보기 드물게 교육불평등과 계층의 불평등이 지역 간 격차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각계의 논쟁이 고조된 한 해였다. 이러한 논쟁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주관 아래 이루어진 연구보고서(김광익 외, 2003) 『입시제도의 변화: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가 공식적으로 발표됨으로써 촉발되었다. 이 연구보고서는 1970년 이후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들의 학생기록카드를 분석하여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출신지역이 입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출신 학생이 입학 학생의 60%에 이를 정도로 서울지역의 편중이 심하였다. 또한, 서울시 내에서 8학군과 타 지역 간의 격차가 증가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2. 입시제도의 변화에 관한 부분에서 발견된 점은 입시제도의 변화가 지역별 입학률에 일시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곧 그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입시제도의 변화를 통해 지역별 교육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의 직업이 입학률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무엇보다 소득에 따른 입학률 격차가 뚜렷하게 존재하며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소득 직종의 자녀들의 입학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비판 논의에서 김기석(2004)은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한다. 보고서는 자료가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해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연구진은 입학률과 부모의 소득수준과 같은 배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 사용한 수치는 학생 배경별 구성비이며 그러한 자료로 부모의 소득수준과 학생의 입학여부 간의 상관

관계를 계산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연구가 보여준 것은 시간의 변동에 따른 구성비의 변화 추세일 뿐인데 구성비는 수집된 자료를 간결하게 요약할 뿐이며 상관관계나 인과관계는 보여주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그렇기에 그러한 경향이 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한다. 이런 상태에서 가정배경의 영향력 증가를 평준화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한다.

더불어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은 대부분 수능 성적 분포에 있어 상위 2%에 속하는 학생들인데, 수능성적이 중간인 학생과, 수능 성적 최하위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 대한 같은 수준의 실증적 검토 없이 “지난 30년간 입시제도의 변화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변화하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전국 수험생에 비추어 보면 매우 특수한 사례인 서울대 사회대 입학생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비판한다.

각계의 떠들썩한 논쟁을 촉발시켰던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소득과 교육을 통한 계층의 대물림 현상에 관한 것이다. 보고서의 중점적인 내용인 가정배경과 교육성취와의 관계는 지금까지 연구된 많은 연구결과물 들에서도 밝히듯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가 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각계의 논의를 촉발시켰는가? 이에 대해 계층불평등의 문제가 공간에 투영되어 지역적 불평등으로 가시화되었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차별화된 거주지 내에서 이러한 계층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고착화 된다는 것을 ‘강남’¹¹⁾이라는 공간을 통해 주목하게 된 것이다.

계층과 교육격차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반면, 지역간 교육격차는 최근에 들어서야 많은

11) 강남(江南)은 여러 가지 범주로 사용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구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관심을 끌고 있는 주제이다. 지역을 매개로 한 사회적 분리 현상은 선진국에서 먼저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미국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서 인종을 중심으로 거주지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된 논의를 이루었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의 지역간 교육격차에 관한 논의는 주로 도·농간 격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는 교육여건 격차와 그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의 격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그러한 지역간 교육격차가 계층별 교육격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근래에 논의되는 지역간 교육격차는 계층간 격차와 훨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별 거주지분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이러한 거주지분화와 교육불평등에 주목한 많은 연구들이 진척되어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성열관(2005)은 미국에서의 교육격차의 발생 원인인 거주지분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주거공간이 차별적으로 분화되면서, 그러한 현상의 결과로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거주지 분화는 기본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물질적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더욱이 그러한 능력은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손준중(2004)의 연구에 따르면 공간의 교육적 분리와 거주지의 분리가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사회적 공간이 교육적 불평등의 생산 및 재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시라는 도시공간을 중심으로 거주지역간 공간적 불평등과 교육격차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이 연구에서 도시 공간은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리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볼 때 경제적 불평등이 거주지 분리와 같은 공간의 분리와 불평등을 낳고, 그것이 공간의 교육, 문화, 소비의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힌다.

최은영(2004)은 ‘빛장도시’¹²⁾라는 개념으로 거주지를 학력자본 재생산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행정동별 부모의 학력(學歷)수준이 자녀세대의 학력(學歷)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석하여, 거주지역에서 계급 지위를 안정적으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월등하다고 밝힌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양호한 교육환경을 가진 사례지역인 강남구는 높은 주택가격으로 타계급에 대한 배제를 통해 배타적인 빗장도시의 성격을 강화한다고 언급한다.

성기선(2003)은 ‘대학입학 수학능력 모의고사’ 자료를 통해 학군별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군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입학 당시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한다. 가장 성취도 높은 학군과 가장 저조한 학군의 평균점수 차이가 표준편차의 2/3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격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생들의 학업수준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그 격차 정도에서도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김종엽(2003)은 경제적 여건이 좋은 특정지역에서 학력의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고, 사회불평등 구조가 고착화 된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계층 재생산의 관계를 다음 장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양분화된 계층구조를 확인하고 이러한 계층구조가 공간에 반영되어 공간에서도 양분화된 구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

12) ‘비가시적이지만 견고한 사회경제적 장벽에 의해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지역’의 의미로 부유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마치 대문이 있는 것과 같이 폐쇄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 최은영(2004) 참조.

Ⅲ. 서울시 소득과 교육성취에 따른 계층 재생산의 관계

1. 분석지표

본 연구에서는 2001년 서울시 구별 파워엘리트 LQ지수, 2005년 서울시 구별 가구 월평균소득, 2006년 서울시 구별 서울대 합격비율을 분석지표로 활용하였다.

1) 파워엘리트 LQ지수

파워엘리트의 구별 거주비율과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주인구 10,000명 당 파워엘리트 수를 나타내는 입지계수(LQ)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LQ = \frac{i\text{지역 파워엘리트수} / \text{서울시 파워엘리트수}}{i\text{지역 상주인구} / \text{서울시 상주인구}}$$

입지계수 LQ가 1이면 i지역에 거주하는 파워엘리트의 구성비가 서울시 평균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1보다 크면 평균보다 많다는 것을, 1보다 작으면 평균보다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지수를 서울시 자치구별로 산출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의 각 구에 거주하는 파워엘리트 계층의 공간분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 3. 직업별 파워엘리트 LQ지수

구분	파워 엘리트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교육인	의료인	문화 예술인	기타 직업
서울시	1	1	1	1	1	1	1	1	1	1	1
종로구	2.17	3.18	2.23	2.46	2.10	1.60	1.50	2.31	1.66	4.03	2.17
중구	0.53	1	0.59	0.45	0.51	0.51	0.35	0.46	0.32	0.62	0.53
용산구	1.49	2.45	1.68	1.52	1.01	1.52	1.37	1.31	1.65	1.50	1.49
성동구	0.43	0.64	0.44	0.52	0.33	0.38	0.29	0.48	0.39	0.50	0.43
광진구	0.69	0.90	0.50	0.42	0.56	0.70	0.73	0.76	0.59	0.74	0.69
동대문구	0.31	0.87	0.23	0.19	0.26	0.20	0.15	0.45	0.35	0.43	0.31
중랑구	0.20	0.59	0.24	0.12	0.21	0.15	0.22	0.25	0.10	0.29	0.20
성북구	0.65	0.99	0.59	0.47	0.65	0.50	0.44	0.81	0.62	0.96	0.65
강북구	0.38	0.51	0.42	0.15	0.45	0.24	0.36	0.49	0.27	0.70	0.38
도봉구	0.43	0.52	0.30	0.14	0.66	0.32	0.43	0.51	0.23	0.68	0.43
노원구	0.38	0.51	0.30	0.20	0.36	0.28	0.30	0.55	0.31	0.52	0.38
은평구	0.68	0.78	0.74	0.45	1.62	0.58	0.66	0.52	0.19	1	0.68
서대문	0.98	1.65	0.97	0.76	1.11	0.67	0.59	1.32	0.80	1.41	0.98
마포구	0.90	1.17	0.65	1.13	1.10	0.72	0.60	0.88	0.67	1.63	0.90
양천구	1	0.64	1.02	0.82	1.43	1.04	1.20	0.92	1.49	0.65	1
강서구	0.35	0.39	0.29	0.12	0.64	0.38	0.49	0.18	0.16	0.45	0.35
구로구	0.22	0.53	0.33	0.09	0.34	0.23	0.10	0.19	0.11	0.22	0.22
금천구	0.17	0.37	0.16	0.04	0.17	0.19	0.11	0.20	0	0.18	0.17
영등포구	0.92	1.39	0.90	0.71	1.25	0.86	1.09	0.82	1.47	0.66	0.92
동작구	0.86	0.71	0.81	0.51	0.91	0.86	0.99	0.97	0.53	0.85	0.86
관악구	0.42	0.39	0.60	0.29	0.53	0.34	0.36	0.52	0.13	0.50	0.42
서초구	4.29	2.54	4.74	6.92	3.01	4.38	4.05	4.39	5.34	3.38	4.29
강남구	4.07	2.80	4.06	4.79	3.68	4.78	4.51	3.52	4.93	2.65	4.07
송파구	1.65	0.91	1.74	1.59	1.18	1.94	2.16	1.52	1.63	1.23	1.65
강동구	0.60	0.52	0.36	0.25	0.51	0.68	0.60	0.63	0.36	0.75	0.60

< 출처: 김창석, 2002, p.75 >

<표 3>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종로, 용산, 서초, 강남, 송파구는 전 직업의 LQ지수가 서울시 평균 LQ지수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는 전 직종에 종사하는 파워엘리트가 해당 구에 높은 비율로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구의 수치를 직업별로 분석해 보면, 종로구는 다른 파워엘리트보다 정치인, 문화예술인의 거주비율이 높는데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인과 금융인의 거주비율은 낮다. 용산구는 정치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언론인의 거주비율은 낮다. 서초구는 법조인과 의료인의 거주비율이 높으며 이는 LQ지수가 높은 다른 구들과 비교했을 때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이는 수준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정치인의 거주비율은 낮다. 강남구는 법조인과 의료인의 거주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정치인과 문화예술인의 비율이 낮다.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사실을 비교해 보면, 종로구와 용산구의 파워엘리트 거주비율에서 정치인과 문화예술인의 거주비율은 높은 반면 의료인과 법조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거주비율을 보인다. 이에 반해 서초구와 강남구는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송파구는 기업인과 금융인의 비율이 자체 구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구로, 중랑, 금천구는 파워엘리트 거주비율이 가장 낮은 구들이다. 금천구에는 수치상으로 파워엘리트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LQ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입지계수를 통해 산출된 서울시 파워엘리트 LQ지수를 구별로 순위화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파워엘리트 LQ지수

순위	구	LQ지수	순위	구	LQ지수
	서울시	1	13	성북구	0.65
1	서초구	4.29	14	강동구	0.60
2	강남구	4.07	15	중구	0.53
3	종로구	2.17	16	성동구	0.43
4	송파구	1.65	17	도봉구	0.43
5	용산구	1.49	18	관악구	0.42
6	양천구	1	19	강북구	0.38
7	서대문	0.98	20	노원구	0.38
8	영등포구	0.92	21	강서구	0.35
9	마포구	0.90	22	동대문구	0.31
10	동작구	0.86	23	구로구	0.22
11	광진구	0.69	24	중랑구	0.20
12	은평구	0.68	25	금천구	0.17

< 출처: 표 3을 토대로 작성 >

구별 파워엘리트 LQ지수를 순위화한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 평균 LQ지수인 1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구는 서초, 강남, 종로, 송파, 용산구로 5개 구이다. 이들 중 1,2,3 위를 차지한 서초, 강남, 종로구는 서울시 LQ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종로구의 LQ지수는 서울시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서초구와 강남구는 서울시 평균의 4배 이상이나 높은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이 지역에 파워엘리트 거주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구로, 중랑, 금천구의 LQ지수는 서울시 평균의 약 1/5 정도의 수치를 나타낸다.

또한, 전체 25개 구 중에서 서울시 LQ지수보다 높은 구가 5개 구인데 반

해, 서울시 LQ지수에 못 미치는 구는 19개 구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서울시 평균에 못 미치는 구의 수자가 훨씬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으로 구별 파워엘리트 분포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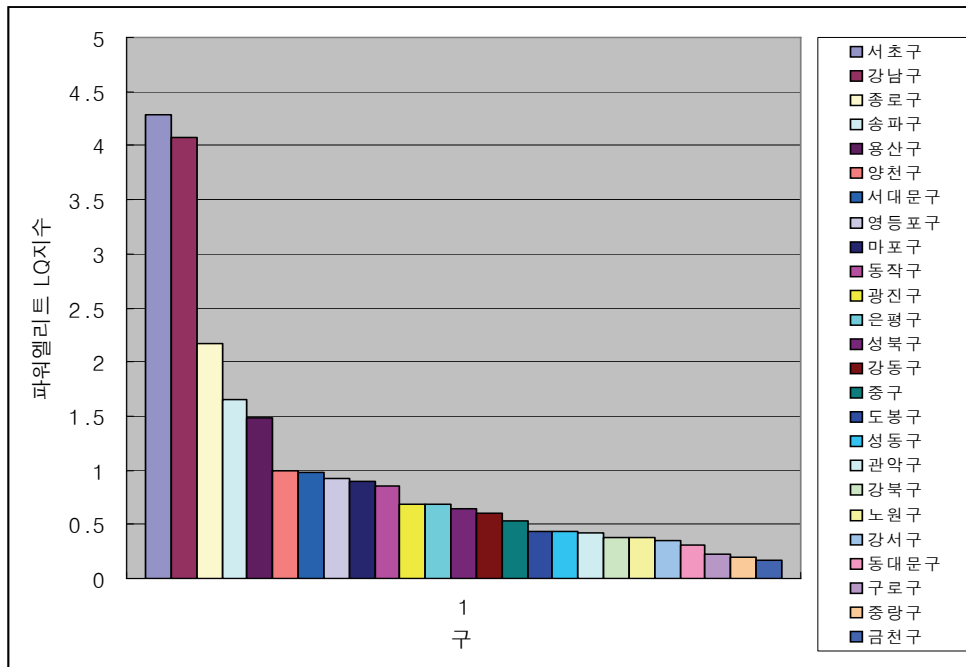


그림 3. 파워엘리트 LQ지수

구별 LQ지수의 지역적 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LQ지수를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대부분의 구들이 서울시 평균수치에 못 미치는 것에 비해 5개 구만이 서울시 평균수치를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로 가시화했을 때 지역적 편차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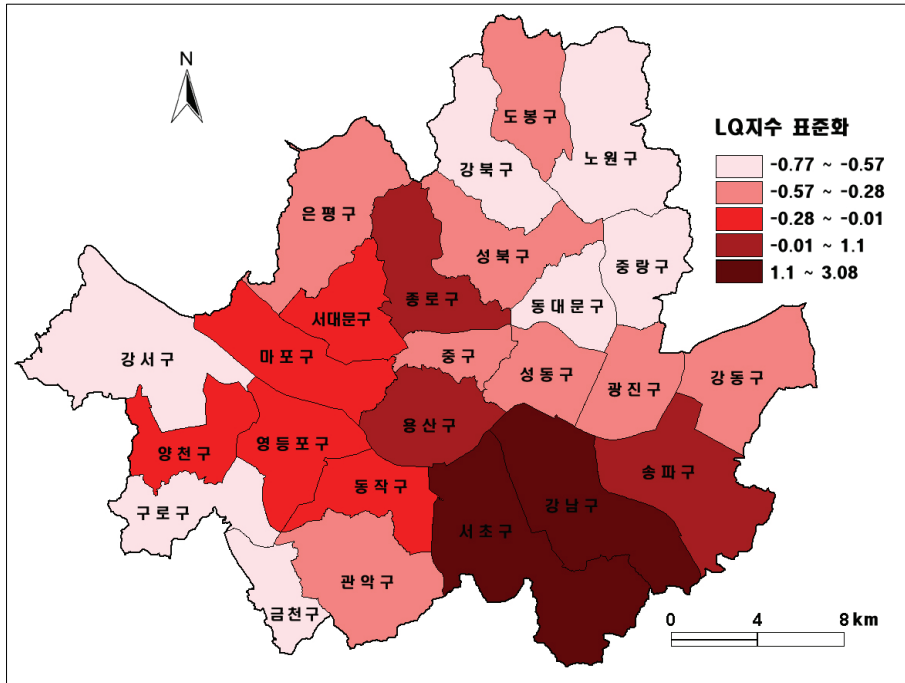


그림 4. 파워엘리트 LQ지수 분포도

파워엘리트의 구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표 3>의 분석수치를 표준화하여 구간별로 나누어 서울시 지도에 나타내었다. 지도로 서울시 파워엘리트 LQ지수의 지역적인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LQ지수를 표준화한 수치를 구간별로 나눈 결과 가장 높은 수치의 구간에는 강남구와 서초구가 포함되고, 송파구, 용산구, 종로구가 두 번째 높은 수치의 구간에 포함되었다. 다른 구간들에서는 5개 이상의 구들이 같은 구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가구 월평균소득

2005년 서울시 자치구별 가구 월평균소득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 가구 월평균소득

(단위: 만원,%)

순위	서울시 구별	월평균 수입	1백만원 미만	1백만원~2백만원 미만	2백만원~3백만원 미만	3백만원~4백만원 미만	4백만원~5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
	서울시	279.6	6.6	18.9	27.7	23.5	10.5	11.2
1	서초구	381.1	4.0	12.2	18.6	20.7	14.3	27.8
2	강남구	355.5	4.0	8.3	20.8	24	16.5	22.7
3	송파구	328.5	2.2	14.9	24.3	25.8	13.6	17.5
4	영등포구	292.2	6.1	14.4	27.4	27.7	9.8	13.3
5	광진구	286.3	4.2	18.5	28.7	23	11.8	13.7
6	양천구	285.9	6.0	20.4	25.5	22.5	11.4	13
7	강동구	283.5	4.9	18.1	22.9	32.1	10.3	10.9
8	구로구	281.2	4.4	19.9	27.1	27	10.4	9.9
9	강서구	279.8	7.0	20.4	27.6	21.7	8.7	14.2
10	용산구	278.2	8.0	18.3	27.1	24.6	8.7	11.8
11	동작구	268.1	9.2	20.3	26.4	22.2	10.4	10.9
12	서대문구	265.2	8.2	24.1	23.3	21.6	10.2	9
13	노원구	264.8	7.7	17.7	28.5	26.7	12.7	6.4
14	도봉구	261.2	9.5	19.7	28.6	22.5	8	11
15	동대문구	260.5	4.5	17.6	39	24.2	9.6	5.1
16	금천구	259.3	7.2	19.9	29	22.4	12.2	6
17	은평구	259.2	3.8	13.8	44.8	27.4	7.7	2.4
18	마포구	258	10.1	19.7	27	21.7	11	9.1
19	관악구	256.5	4.5	21.8	34.6	24.1	7.3	6.4
20	종로구	253.9	7.5	24.4	26	23.7	9	7.3
21	성동구	252	10.2	21.5	24.8	22.7	6.6	9.1
22	중구	251	11.2	23.4	22.2	25.2	11.1	5.6
23	강북구	241.6	11.8	20.2	32.1	20.2	7.9	7.7
24	중랑구	236.4	8.6	28.1	31.6	15.1	9.8	5.7
25	성북구	234.1	9.9	30.6	24.6	15.9	7.3	7.3

< 출처: 「2005 서울서베이」, 서울시, 2006, p.175 >

<표 5>는 서울시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2005년 서울시 구별 가구월평균 소득 자료를 순위화하여 재구성하였다. 표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구 월평균소득이 서울시 평균수치와 비슷한 강서구를 기준으로 상위에 8개의 구가 있고, 하위에 16개 구가 있다. 소득 순위 1,2,3 위에 서초, 강남, 송파구가 있으며 이들 이들 세 구의 소득은 서울시 평균보다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가량 높다. 또한 서초, 강남, 송파구는 다른 구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가계의 비율이 자체 구내에서 약 60%정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계의 비율이 다른 구들에 비해 적게는 2배 이상, 많게는 5배 이상 되며, 서울시 평균인 11.2%를 훨씬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3개 구는 앞서 보았던 파워엘리트 LQ지수 또한 높았던 구들이다.

강서구와 용산구의 소득은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다. 강서구와 용산구의 소득비율에서 1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소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종로구는 소득 순위 20위로 소득에서는 LQ지수 순위와는 달리 하위에 자리하였다. 가장 하위의 강북, 중랑, 성북구는 상위 3개 구와 달리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소득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 5>의 내용을 <그림 5>에서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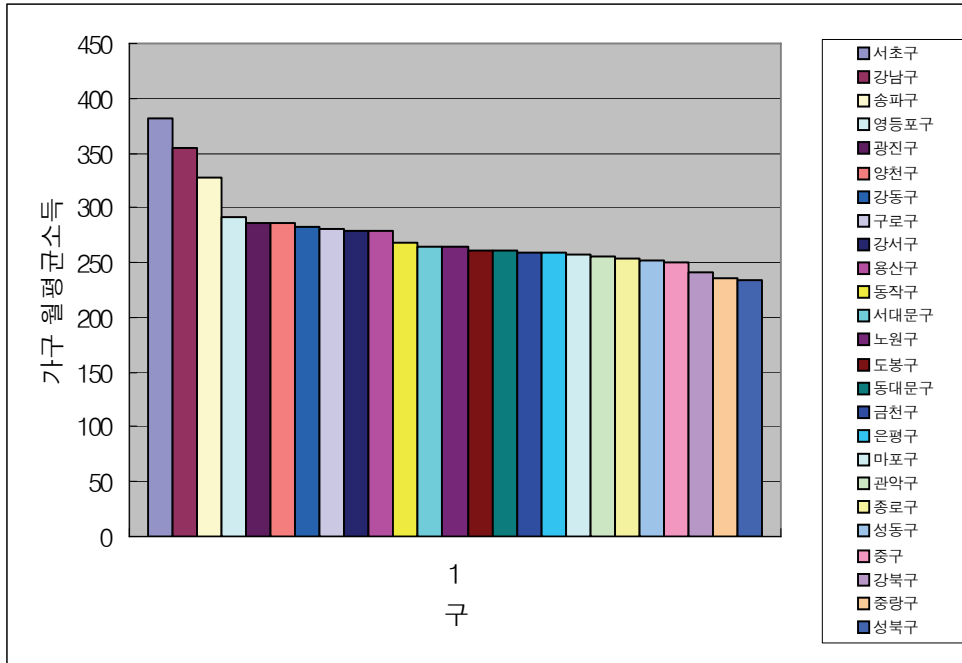


그림 5.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시 각 구별 가구 월평균소득을 나타내는 <그림 5>의 그래프를 보면 소득이 높은 구들은 서초, 강남, 송파, 영등포, 광진구 순이다. 이들 구 중 서초, 강남, 송파구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으로 다른 구들에 비해 최소 50만원 이상 소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구들의 가구 월평균소득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250만원에 못 미치는 구들은 강북, 중랑, 성북구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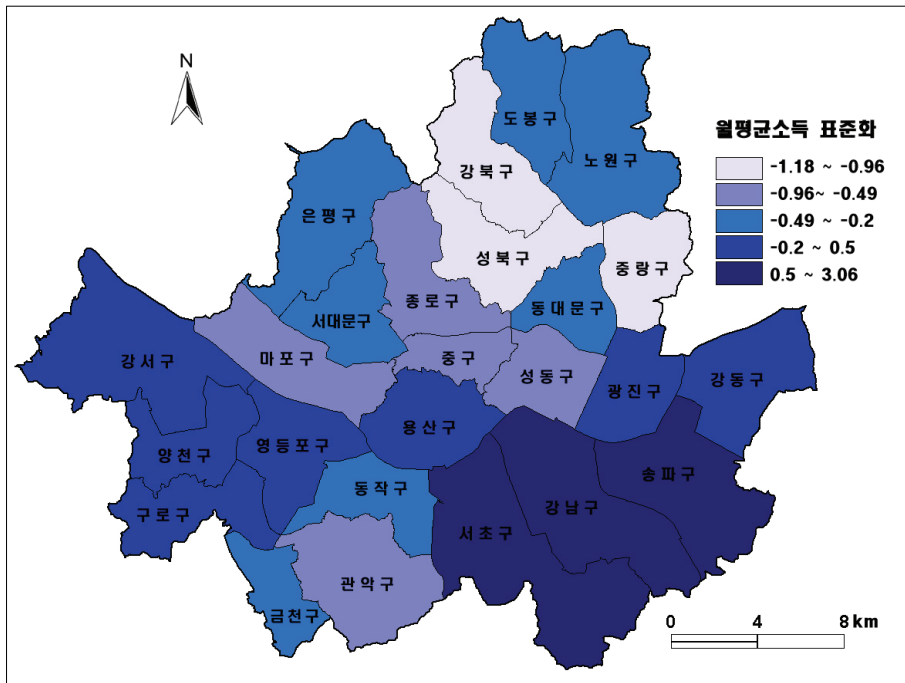


그림 6. 가구 월평균소득 분포도

이들 구별 가구 월평균소득을 표준화하여 지도로 나타낸 결과, LQ지수와 비슷한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초, 강남, 송파구가 가장 높은 값의 구간에 위치하며 강북, 성북, 중랑구가 가장 낮은 값의 구간에 포함된다. 그 외의 3개 구간에는 5개정도의 구들이 고르게 분포한다.

3) 서울대 합격비율

2006학년도 구별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특목고를 제외한 서울시 소재 인문계 고교 고3 학생수와 구별 인문계 고교 서울대 합격자수를 고려하여 구별 전체 인문계 고3 학생수 대비 서울대 합격자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특목고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비율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내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표 6. 인문계 고교 학생수

(단위: 개, 명)

순위	구	학생수	학교수	순위	구	학생수	학교수
	서울시	89,303	201	13	중랑구	3,256	7
1	강남구	7,820	16	14	영등포구	2,955	8
2	노원구	7,170	17	15	동대문구	2,571	6
3	송파구	6,443	12	16	도봉구	2,571	7
4	양천구	5,424	12	17	구로구	2,555	6
5	강서구	5,358	13	18	동작구	2,481	6
6	서초구	4,955	10	19	용산구	2,387	7
7	강동구	4,561	8	20	서대문구	2,325	5
8	은평구	3,851	7	21	중구	1,956	5
9	광진구	3,707	7	22	금천구	1,937	4
10	종로구	3,580	9	23	강북구	1,798	4
11	성북구	3,369	8	24	마포구	1,762	5
12	관악구	3,315	9	25	성동구	1,196	3

< 출처: 서울시 교육청, 2006 서울교육통계연보 >

위의 표에서 구별 학교수는 서울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인문계고교 217개 교에서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15개 교와, ‘문영여고’와 ‘서울문영여고’로 중복 등록되어 있는 학교수 1개 교를 제외하여 집계한 결과이다. 학생수는 서울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이렇게 집계된 201개의 학교와 해당 학생수를 구별로 집계하여 순위로 나타내면 강남, 노원, 송파구의 순서로 구별 학생수가 가장 많다. 이들 구에는 소재한 학교수가 많고 그에 따라 학생수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수치는 중간 순위 구의 약 2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구별 서울대 합격자수를 산출하여 <표 7>로 나타내었다.

표 7.서울대 합격자수

(단위: 명)

순위	구	서울대 합격자수	순위	구	서울대 합격자수
	서울시	882	13	서대문구	21
1	강남구	211	14	구로구	19
2	서초구	94	15	동대문구	17
3	송파구	66	16	성북구	17
4	양천구	55	17	동작구	16
5	강서구	52	18	강북구	14
6	노원구	51	19	영등포구	14
7	강동구	47	20	도봉구	11
8	은평구	30	21	중구	11
9	광진구	29	22	마포구	10
10	종로구	29	23	중랑구	9
11	용산구	28	24	금천구	4
12	관악구	25	25	성동구	2

< 출처: 2006년 9월 7일자. 중앙일보 >

<표 7>은 2006년 9월 7일자 중앙일보 ‘서울대 고교별 합격자 현황’ 기사
의 자료를 해당 학교가 소재한 구별로 정리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6>에서 학생수가 강남, 노원, 송파구 순으로 많은 것에 비해, 서울대
합격자수는 강남, 서초, 송파구 순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에서 노원구는 학생수는 많지만 서울대 합격자수는 6위에 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대 합격자가 10명 이하인 구는 중랑, 금천, 성동구로 이들은 강남구의 1/20 수준, 서초구의 1/10 수준이다. <표 6>과 <표 7>을 아래의 수식으로 산출한 구별 서울대 합격비율 결과는 <표 8>과 같다.

$$\text{서울대 합격비율} = \frac{i\text{지역 서울대 합격자수}}{i\text{지역 인문계 고교 고3학생수}} \times 100$$

표 8. 서울대 합격비율

(단위: %)

순위	구	서울대 합격비율	순위	구	서울대 합격비율
1	서울시 평균	0.82	13	관악구	0.75
2	강남구	2.70	14	구로구	0.74
3	서초구	1.90	15	노원구	0.71
4	용산구	1.17	16	동대문구	0.66
5	강동구	1.03	17	동작구	0.64
6	송파구	1.02	18	마포구	0.57
7	양천구	1.01	19	중구	0.56
8	강서구	0.97	20	성북구	0.50
9	서대문구	0.90	21	영등포구	0.47
10	종로구	0.81	22	도봉구	0.43
11	강북구	0.78	23	중랑구	0.28
12	광진구	0.78	24	금천구	0.21
13	은평구	0.78	25	성동구	0.17

예를 들어, 수식에 강남구의 수치를 넣어 계산해 보면 $\frac{211}{7820} \times 100 = 2.698$ 의 값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70% 라는 서울대 합격비율을 나타내었다. 다른 구들의 값도 이러한 과정으로 산출하였다.

구별 서울대 합격비율을 백분율로 산출하여 순위로 나타낸 결과, 서울시 평균은 0.82 이며 서울시 평균과 비슷한 종로구를 중심으로 평균보다 높은 9개의 구가 있으며 평균보다 낮은 구가 15개이다. 높은 순위를 보이는 구는 강남, 서초, 용산, 강동구 들이다. 이 중에서 강남구는 서울시 평균의 3배가 넘는 합격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남구에 학교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서울대 합격자수 또한 많은 것을 나타낸다. 2위를 차지한 서초구도 서울시 평균의 2배를 넘는 수치를 나타낸다. 이들 상위 순위 3개구의 합격비율은 순위에 따라 격차가 상당히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다음 순위를 기록하는 강동, 송파, 양천 강서구는 합격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다. 하위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구들은 중랑, 금천, 성동구이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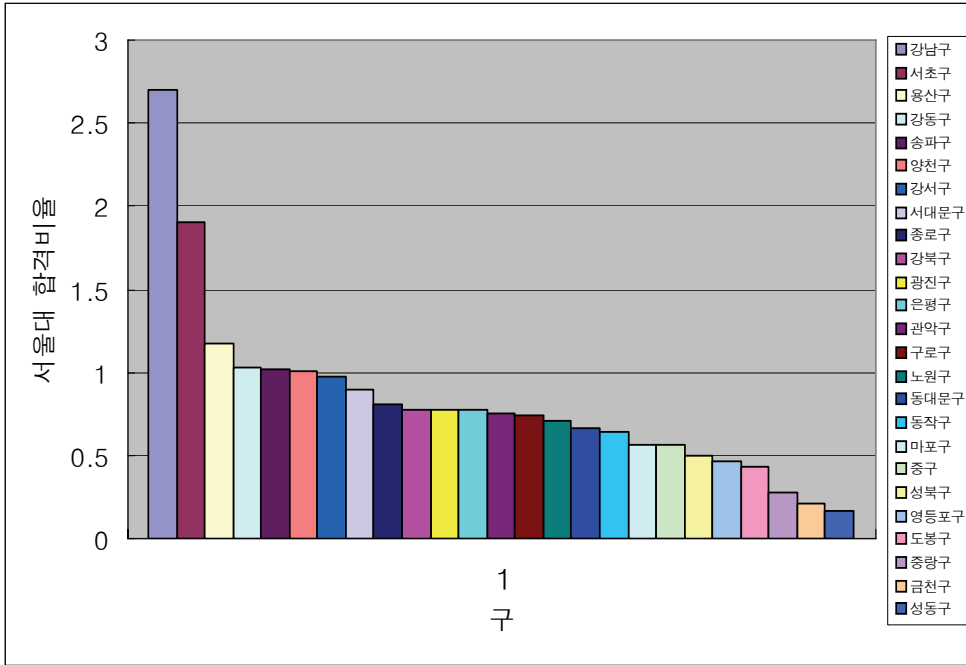


그림 7. 서울대 합격비율

그래프를 보면 합격비율의 구별현황이 대체적으로 LQ지수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LQ지수가 높은 구들이 서울대 합격비율도 높고, LQ지수가 낮은 구들이 서울대 합격비율도 낮다.

강남, 서초구가 1.5의 수치로 다른 구들의 수치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0.5에서 1사이의 수치에 대부분의 구들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위의 성북, 영등포, 도봉, 중랑, 금천, 성동구는 0.5 이하의 수치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에서 LQ지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구별 편차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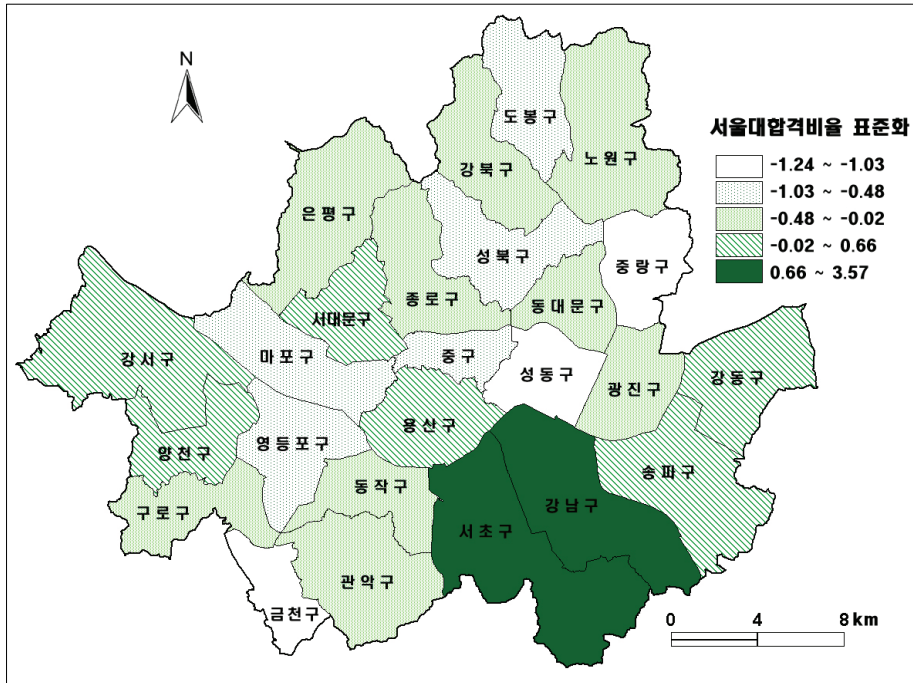


그림 8. 서울대 합격비율 분포도

<그림 8>에서 서울대 합격비율을 표준화하여 지도로 나타냈다. 서초구와 강남구가 같은 구간에 나타나고, 송파구는 용산구와 강동구가 분포하는 두 번째 구간에 위치한다. 여기서 <그림 4>와 <그림 6> 그리고 <그림 8> 분포도를 비교하여 송파구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LQ지수 분포도와 서울대 합격비율에서는 두 번째 구간에 위치하여 분포하는데, 가구 월평균소득 분포에서는 강남, 서초구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간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동, 중랑, 금천구는 가장 낮은 구간에 위치한다. 가장 많은 구들이 가운데 구간인 -0.48 에서 -0.02에 분포한다.

2. 지표의 계량분석

본 연구의 실제적 검증을 위해 잔차분석, 단순선형 회귀분석, Pearson의 단순상관계수 분석, 편상관계수 분석, K-평균 군집분석으로 계량분석 하였다. 각각의 분석방법의 특징과 분석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잔차분석의 특징과 분석과정에서 잔차란 바로 예측된 값과 실제 값과의 차이를 뜻하는데 이들의 잔차가 과연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의 진행에 있어 잔차의 무작위성을 알아보기 위해 잔차들이 정규분포에 맞게 분포하고 있는지 P-P plot으로 확인한다. 잔차분석의 의미는 본격적인 회귀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변인들의 케이스별 잔차분석을 실행하여 연구에 맞는 분석틀을 찾는 것에 있다. 즉, 회귀분석 이전에 잔차분석을 실행하여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다.

단순선형 회귀분석은 독립변수 x 가 종속변수 y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1차 회귀식을 구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회귀식을 구할 때는, 오차 제곱합을 최소로 하는(즉 실제 값과 예측된 값과의 차이가 오차이기 때문에, 이 오차를 최소로 하기위해) 회귀식을 찾는다. 단순선형 회귀분석은 상관계수와 같이 두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쓰이지만 상관계수가 상호 영향을 분석하는 통계식이라면 단순선형회귀는 한 방향 관계 (즉, x 에서 y 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는 식이다.

피어슨의 단순상관계수 분석은 두 변수 x y 간의 직접적인 선형관계를 측정하는 상관성의 측도이다. 즉 같은 구에 대해서 그 구의 엘리트 지수와 서울대 합격 비율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분석은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보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또 강력한 분석이다.

편상관계수 분석은 제어변수들이 주는 선형효과를 제거한 뒤 두 변수 간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분석이다. 상관계수 분석은 제어변수들의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분석인데 반해, 편상관계수 분석은 제어변수들의 효과를 고려하여 이들 효과를 제거한 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편상관계수 분석은 제어변수를 제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분석이다. 역으로 이 분석에서는 제어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K-평균 군집분석은 N개의 개체(본 논문에서는 서초구, 강동구 등의 구)들을 대상으로 p개의 변수(LQ 지수, 월평균소득, 서울대합격 비율의 3개의 변수)를 측정하였을 때 관측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N개 개체들 사이의 유사성 또는 비유사성 정도를 측정하여 개체들을 가까운 순서대로 군집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란 개체들의 P변수의 차이에 따른 거리를 말한다. 거리의 의미는 개체들을 각 변수들의 값에 따라서 P 차원의 공간에 펼쳐 놓았을 때 이들 N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것들끼리 묶어서 군집을 만든다. 군집분석은 이러한 방법으로 개체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묶는데 사용되는 분석방법이다.

1) LQ지수-소득 잔차분석

분석지표로 제시된 파워엘리트 LQ지수에 따른 소득의 예측값으로 실제값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잔차분석을 하였다. 즉 LQ지수에 의해 소득을 추정해 봄으로써 추정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것이 자료로 활용될수 있는지의 적합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잔차분석의 결과 이상점이 여러 개 발견될 경우 자료로서의 적합도가 떨어져 활용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잔차분석을 거쳐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본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표 9.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잔차분석

(단위: 만원)

	표준화 잔차	월평균소득	예측값	잔차
종로구	-2.63	253.90	306.47	-52.57
중구	-0.58	251.00	262.65	-11.65
용산구	-0.51	278.20	288.30	-10.10
성동구	-0.40	252.00	259.97	-7.97
광진구	0.97	286.30	266.92	19.38
동대문구	0.19	260.50	256.77	3.73
종랑구	-0.87	236.40	253.83	-17.43
성북구	-1.59	234.10	265.85	-31.75
강북구	-0.85	241.60	258.64	-17.04
도봉구	0.06	261.20	259.97	1.23
노원구	0.31	264.80	258.64	6.16
은평구	-0.37	259.20	266.65	-7.45
서대문구	-0.47	265.20	274.67	-9.47
마포구	-0.73	258.00	272.53	-14.53
양천구	0.54	285.90	275.21	10.69
강서구	1.10	279.80	257.84	21.96
구로구	1.34	281.20	254.36	26.84
금천구	0.31	259.30	253.03	6.27
영등포구	0.96	292.20	273.07	19.13
동작구	-0.17	268.10	271.46	-3.36
관악구	-0.16	256.50	259.71	-3.21
서초구	0.90	381.10	363.13	17.97
강남구	-0.09	355.50	357.25	-1.75
송파구	1.80	328.50	292.58	35.92
강동구	0.95	283.50	264.52	18.98

표준화 잔차를 분석해 보았을 때, 종로구의 표준화 잔차 값이 -2.63 으로 잔차의 절대값이 2를 넘는 것으로 보아 특이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LQ지수에 따른 소득을 예상해 봤을 때, 종로구의 실제소득이 예측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이함이 발견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 4>에서 종로구의 LQ지수는 3위를 나타냈던 것에 반해 <표 5>의 소득 순위에서 20위를 나타낸 것이 잔차분석에서 특이값으로 발견된 것이다.

종로구의 경우에만 특이점이 있고 그 외의 구에서는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오차에 있어 이상점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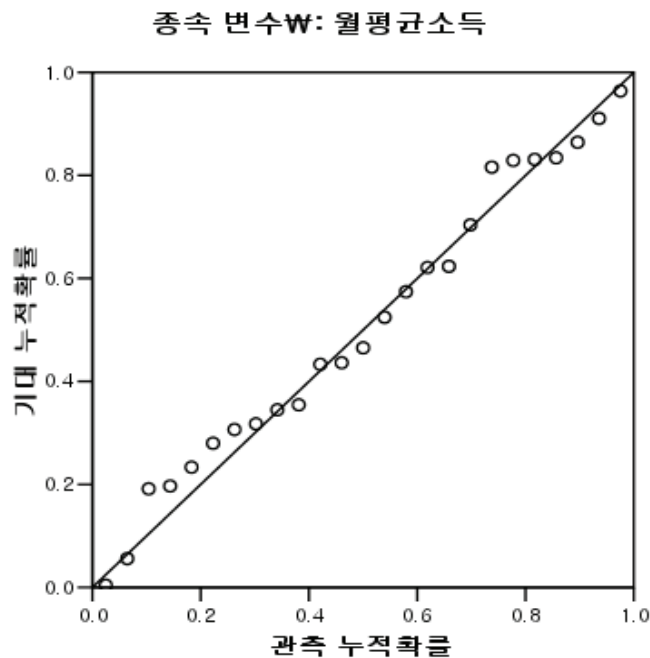


그림 9.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잔차 분포도

오차가 정규성을 따르는 지를 살펴보았을 때, 점들이 직선상에 상당히 가깝게 위치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이 옳음을 알 수 있다. P-P plot에서 선에 잔차들이 고르게 붙어 있는 형태로 나타나면 잔차들이 정규분포를 잘 따르고 있고 어떤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회귀분석 자료로 쓰이기에 적합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다.

또한, 잔차의 산점도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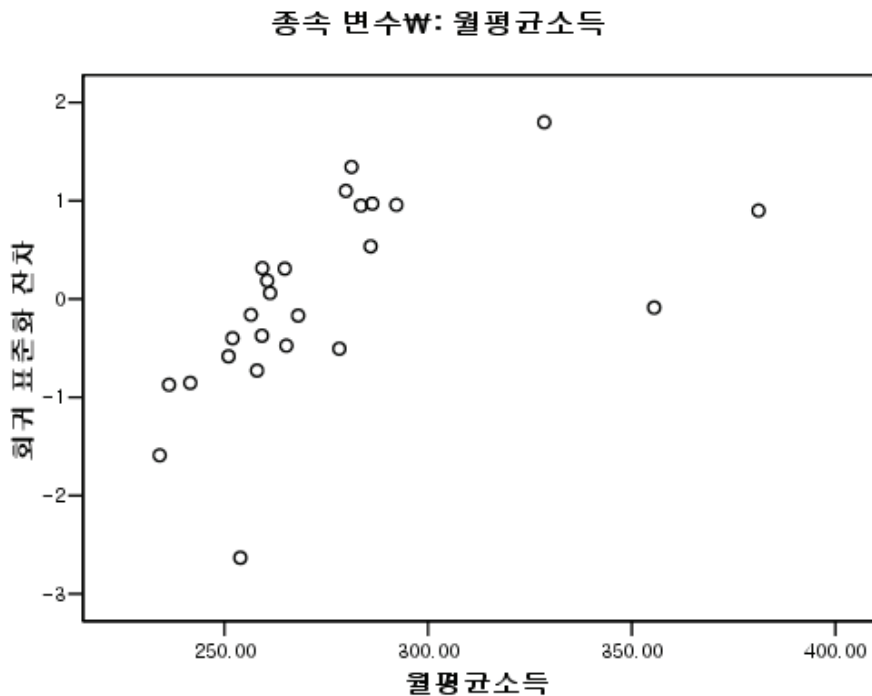


그림 10.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잔차 산점도

위의 산점도를 고려한 결과 대체적으로 각 구들의 잔차 값이 -1에서 1사이 에 원 형태로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산점도로도 정규분포의 가정이 옳음을 확인하고, 변수를 회귀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LQ지수-소득 회귀분석

잔차분석을 통해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파워엘리트 LQ지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단순선형 회귀분석은 두 변수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 한 방향의 관계를 분석하는 식이다.

분산분석

표 10.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19716.447	1	19716.447	49.432	0.0000
잔차	9173.833	23	398.862		
합계	28890.280	24			

회귀식이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의 결과 각 계수들의 유의수준이 0.0000으로 1% 이내에 해당하므로 유의하다는 것을 도출했다. 즉, 분석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분석식을 회귀모형에 적용시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회귀모형

표 11.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R제곱	수정된 R제곱
상수	248.482	5.490	45.263	0.0000	0.682	0.669
LQ지수	26.724	3.801	7.031	0.0000		

회귀식이 의미가 있음을 확인한 후, 회귀모형을 통한 두 지표간의 함수를 분석한 결과, 파워엘리트 LQ지수의 계수는 26.724 이고 1%수준에서 유의하다. 결정계수는 0.682 이고 수정된 결정계수는 0.669 이다.

결정계수 R제곱은 $Y = 248.482 + 26.724X$ 라는 회귀모형식에 대한 설명력에 관한 것으로써, 0.6 이상의 값은 상당히 높은 설명력을 갖는 수준이다. 즉, LQ지수가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검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구별 파워엘리트 LQ지수가 구별 가구 월평균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도출해냈다.

3) 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두 번째 분석지표로 제시된 가구 월평균소득과 서울대 합격비율의 예측값으로 실제값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잔차분석을 하였다. 즉, 소득에 의해 서울대 합격비율을 추정해 봄으로써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분석하여 자료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잔차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2>과 같다.

표 12.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단위: %)

	표준화 잔차	서울대 합격비율	예측값	잔차
종로구	0.80	0.81	0.56	0.25
중구	0.11	0.56	0.53	0.03
용산구	0.99	1.17	0.86	0.31
성동구	-1.18	0.17	0.54	-0.37
광진구	-0.58	0.78	0.96	-0.18
동대문구	0.05	0.66	0.64	0.02
종랑구	-0.21	0.28	0.35	-0.07
성북구	0.59	0.50	0.32	0.18
강북구	1.19	0.78	0.41	0.37
도봉구	-0.71	0.43	0.65	-0.22
노원구	0.04	0.71	0.70	0.01
은평구	0.49	0.78	0.63	0.15
서대문구	0.64	0.90	0.70	0.20
마포구	-0.13	0.57	0.61	-0.04
양천구	0.17	1.01	0.96	0.05
강서구	0.28	0.97	0.88	0.09
구로구	-0.51	0.74	0.90	-0.16
금천구	-1.34	0.21	0.63	-0.42
영등포구	-1.81	0.47	1.03	-0.56
동작구	-0.31	0.64	0.74	-0.10
관악구	0.50	0.75	0.59	0.16
서초구	-0.75	1.90	2.13	-0.23
강남구	2.83	2.70	1.82	0.88
송파구	-1.48	1.02	1.48	-0.46
강동구	0.33	1.03	0.93	0.10

표준화 잔차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표준화 잔차가 2.83으로 절대값 2를 넘는 특이함을 알 수 있다. 강남구는 서울대 합격비율이 예측값 1.82를 훨씬 넘는 실제값 2.7이 조사되었다. 이는 소득이 서울대 합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 다른 영향요소가 더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구들에서는 이상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서 자료의 적합성을 검증하여 본 분석에 이용할 수 있다.

이상의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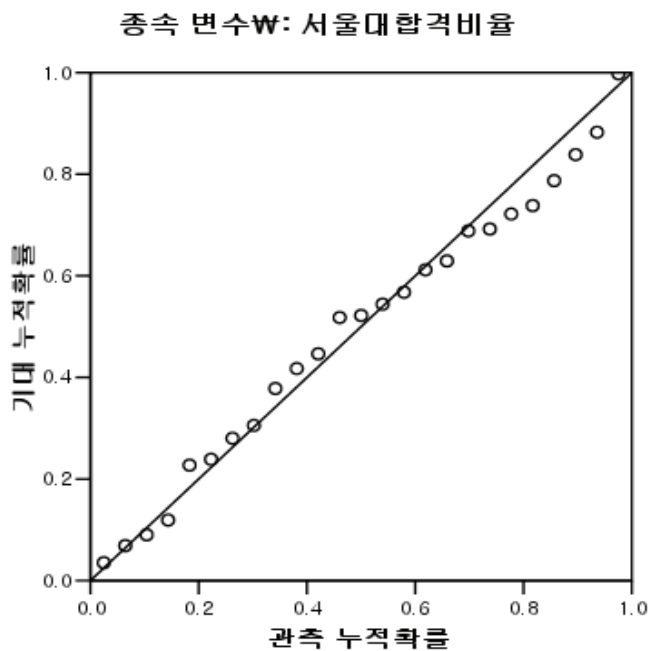


그림 11.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분포도

도표를 통해 오차가 정규성을 따르는 지를 살펴보았을 때, 점들이 직선상에 상당히 밀접하게 위치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이 옳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잔차의 산점도로 가정을 확인해 보면, <그림 12>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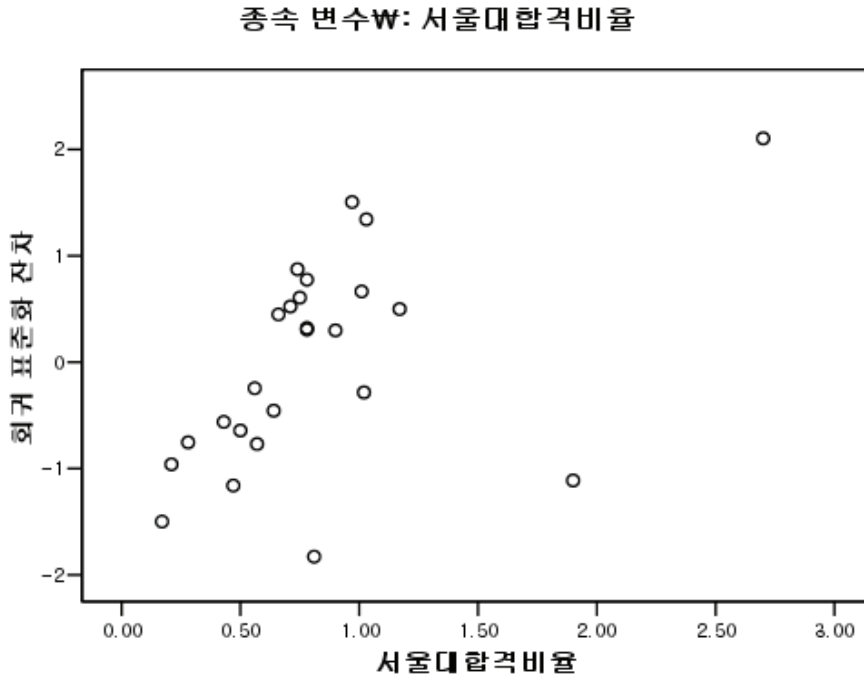


그림 12.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산점도

산점도에서 대부분의 잔차가 -1에서 1사이로 대체적으로 원 형태로 모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잔차들이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정규분포의 가정이 옳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의 잔차 분포도와 <그림 12>의 산점도를 통해 자료의 적합성을 판별하였다. 이로써 분석된 변수를 회귀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소득-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가구 월평균소득이 서울대 합격비율에 미치는 한 방향으로의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려고 단순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산분석

표 13.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4.413	1	4.413	45.335	0.0000
잔차	2.239	23	0.097		
합계	6.652	24			

회귀식이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의 결과 각 계수들이 유의수준 0.0000으로 1% 이내에 해당하므로 유의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회귀모형

표 14. 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R 제곱	수정된 R제곱
상수	-2.577	0.509	-5.067	0.0000	0.663	0.649
소득	0.012	0.002	6.733	0.0000		

회귀모형을 통한 두 지표간의 함수를 분석한 결과, 소득의 계수는 -2.577 이고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결정계수는 0.663 이고 수정된 결정계수는 0.649 이다. 결정계수 R제곱은 0.6 이상으로 높은 설명력을 갖는 수준이다. 이는 소득이 서울대 합격비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세 번째 분석지표로 제시된 LQ지수에 따른 서울대 합격비율의 예측값으로 실제값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잔차분석을 하였다.

표 15.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분석

(단위: %)

	표준화 잔차	서울대 합격비율	예측값	잔차
종로구	-1.83	0.81	1.32	-0.51
중구	-0.24	0.56	0.63	-0.07
용산구	0.50	1.17	1.03	0.14
성동구	-1.50	0.17	0.59	-0.42
광진구	0.31	0.78	0.70	0.08
동대문구	0.45	0.66	0.54	0.12
중랑구	-0.75	0.28	0.49	-0.21
성북구	-0.64	0.50	0.68	-0.18
강북구	0.78	0.78	0.56	0.22
도봉구	-0.56	0.43	0.59	-0.16
노원구	0.52	0.71	0.56	0.15
은평구	0.32	0.78	0.69	0.09
서대문구	0.30	0.90	0.82	0.08
마포구	-0.77	0.57	0.78	-0.21
양천구	0.66	1.01	0.83	0.18
강서구	1.51	0.97	0.55	0.42
구로구	0.87	0.74	0.50	0.24
금천구	-0.96	0.21	0.48	-0.27
영등포구	-1.16	0.47	0.79	-0.32
동작구	-0.46	0.64	0.77	-0.13
관악구	0.61	0.75	0.58	0.17
서초구	-1.11	1.90	2.21	-0.31
강남구	2.10	2.70	2.12	0.58
송파구	-0.28	1.02	1.10	-0.08
강동구	1.34	1.03	0.66	0.37

표준화 잔차를 분석한 결과, 강남구의 값이 2.7의 결과를 보여 절대값 2를 넘는 특이함을 발견할 수 있다. 강남구의 실제값은 예측값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LQ지수의 수치로 서울대 합격비율을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서울대 합격비율이 조사된 것으로, 강남구의 서울대 합격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 외의 구에서는 이상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는 분석에 쓰이기에 적합하다.

이상의 회귀 표준화 잔차의 정규 P-P 도표를 보면 <그림 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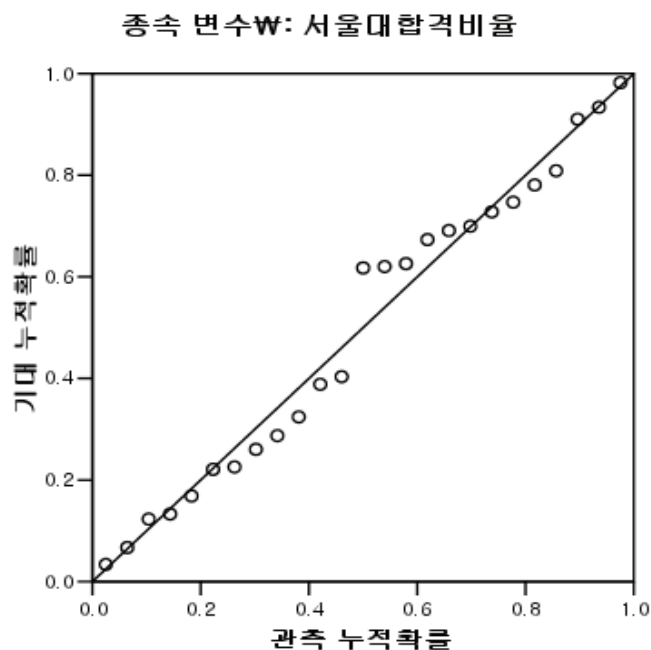


그림 13.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분포도

분포도를 통해 오차가 정규성을 따르는 지를 살펴본 결과, 점들이 직선상에 가깝게 위치하여 정규분포의 가정이 옳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자료의

적합성을 판별하였다.

또한, 잔차의 산점도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확인해 보면, <그림 14>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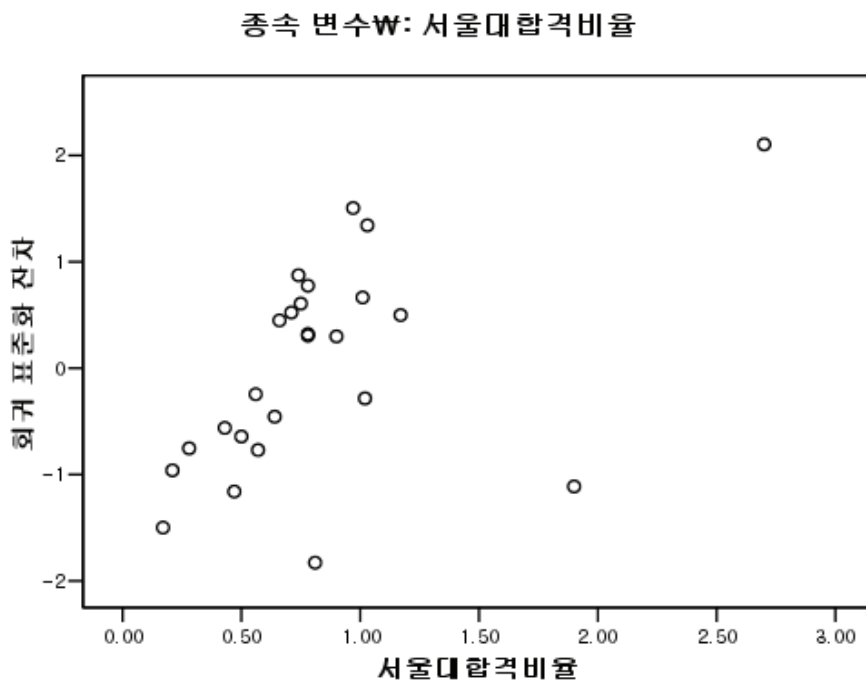


그림 14.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잔차 산점도

잔차의 산점도를 고려한 결과 대체적으로 잔차가 -1에서 1사이의 원 형태로 모여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도 제시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에 부합하여 분석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검증하였다.

6)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LQ지수가 서울대 합격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산분석

표 16.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분산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선형회귀분석	4.880	1	4.880	63.337	0.0000
잔차	1.772	23	0.077		
합계	6.652	24			

회귀식이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의 결과 계수들이 유의하다는 것을 분석하였으며, 각 계수들이 유의수준 0.0000으로 1% 이내에 해당하므로 유의하다. 따라서 회귀식을 적용할 수 있다.

회귀모형

표 17.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회귀분석

	계수	표준오차	t	유의확률	R 제공	수정된 R제공
상수	0.405	0.076	5.309	0.0000	0.734	0.722
LQ지수	0.420	0.053	7.958	0.0000		

회귀모형을 통한 두 지표간의 함수를 분석한 결과, 파워엘리트의 계수는 0.405 이고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결정계수는 0.734 이고 수정된 결정계수는 0.722 이다. 결정계수 R제공은 0.7 이상으로 매우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이는 앞의 2)LQ지수-소득 회귀분석과 4)소득-서울대 합격비율 회

귀분석에서 분석한 것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파워엘리트 LQ지수가 서울대 합격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1)에서 6)까지의 잔차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일차적인 가정이 적합한지를 검증해 보았더니, 예상했던 결과에 부합하는 실제적 검증결과를 도출해냈다.

예상했던 가정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첫 번째 가정은, 파워엘리트 LQ지수가 가구 월평균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는데, 분석결과 회귀모형식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가 0.669로 도출되어 예상에 부합하는 높은 영향력을 검증해냈다.
2. 두 번째 가정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서울대 합격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는데, 결정계수가 0.649로 분석되어 두 번째 가정 역시 예상에 부합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3. 세 번째 가정에서, 파워엘리트 LQ지수가 서울대 합격비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상에서는 0.722로 가장 높은 결정계수가 분석되어 매우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러한 결과들 중에서 예상과 다른 수치를 보이는 특이점이 각 분석에서 하나씩 발견되었는데 종로구는 LQ지수에 따른 소득분석에서, 강남구는 소득에 따른 서울대 합격비율 분석과 LQ지수에 따른 서울대 합격비율 분석에서 특이점으로 드러났다. 이것으로 종로구와 강남구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들 외의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신뢰를 더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각 지표들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7) LQ지수-소득-서울대 합격비율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제시된 세 개의 변수에 대한 각각의 관련정도를 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가정이 타당함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소득이라는 제어변수의 선형효과를 제거하여, 파워엘리트 LQ 지수와 서울대 합격비율과의 관련성을 편상관계수 분석을 통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Pearson의 단순 상관계수(pearson's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

표 18. LQ지수,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상관분석

	파워엘리트 LQ지수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파워엘리트 LQ지수	1 (0.0000)	0.826 (0.0000)	0.857 (0.0000)
가구 월평균소득	0.826 (0.0000)	1	0.815 (0.0000)
서울대 합격비율	0.857 (0.0000)	0.815 (0.0000)	1

피어슨의 단순상관계수분석은 두 변수 간의 직접적인 선형관계를 재는 상관성의 측도로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강력한 분석이다. 이 분석방법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상관정도를 도출해냈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유의 수준도 0.0000 으로 1% 내에서 모두 유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써 연구의 가설을 아주 높은 설명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LQ지수와 소득이 아주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 소득과 서울대 합격비율 역시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 LQ지수와 서울대 합격비율 또한 매우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도출했다.

편상관계수(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표 19. LQ지수-서울대 합격비율 편상관분석

	서울대 합격비율
파워엘리트 LQ지수	0.562 (0.0043)

편상관계수는 제어변수의 효과를 제거한 뒤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두 변수의 관계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제어변수의 영향력까지 파악해 볼 수 있다.

상관계수에서 파워엘리트 LQ지수와 서울대 합격비율의 관계를 구했을 때는 단순히 이들만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지만, 편상관계수 분석에서는 파워엘리트 LQ지수와 서울대 합격 비율의 관계를 구할 때는, 가구 월평균소득의 효과(이것이 여기서는 제어변수가 됨)를 고려하여 이 효과를 제거한 상태에서 파워엘리트 LQ지수와 서울대 합격비율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소득이라는 변수의 영향력을 제거한 후, 파워엘리트 LQ지수와 서울대 합격비율의 상관계수는 0.562이며 역시 유의수준 1% 내에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LQ지수와 서울대 합격비율에 많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로 앞서 <표 18>에서 분석한 LQ지수와 서울대 합격비율의 단순 상관계수가 0.857인 것과 비교하여, 제외변수인 소득이 서울대 합격비율의 상관정도에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1)에서 7)까지의 일차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양분화된 계층구조와 공간구조를 다음의 군집분석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8) K-평균 군집분석

표 20.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표준화변수

구별	파워엘리트 LQ지수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파워엘리트 LQ지수 표준화	가구월평균 소득 표준화	서울대합격비율 표준화
종로구	2.17	253.9	0.81	1.1	-0.61	-0.02
중구	0.53	251	0.56	-0.43	-0.69	-0.5
용산구	1.49	278.2	1.17	0.47	0.09	0.66
성동구	0.43	252	0.17	-0.52	-0.66	-1.24
광진구	0.69	286.3	0.78	-0.28	0.33	-0.08
동대문구	0.31	260.5	0.66	-0.63	-0.42	-0.31
종랑구	0.2	236.4	0.28	-0.74	-1.11	-1.03
성북구	0.65	234.1	0.5	-0.32	-1.18	-0.61
강북구	0.38	241.6	0.78	-0.57	-0.96	-0.08
도봉구	0.43	261.2	0.43	-0.52	-0.4	-0.74
노원구	0.38	264.8	0.71	-0.57	-0.29	-0.21
은평구	0.68	259.2	0.78	-0.29	-0.45	-0.08
서대문구	0.98	265.2	0.9	-0.01	-0.28	0.15
마포구	0.9	258	0.57	-0.08	-0.49	-0.48
양천구	1	285.9	1.01	0.01	0.32	0.36
강서구	0.35	279.8	0.97	-0.6	0.14	0.28
구로구	0.22	281.2	0.74	-0.72	0.18	-0.15
금천구	0.17	259.3	0.21	-0.77	-0.45	-1.16
영등포구	0.92	292.2	0.47	-0.07	0.5	-0.67
동작구	0.86	268.1	0.64	-0.12	-0.2	-0.34
관악구	0.42	256.5	0.75	-0.53	-0.53	-0.14
서초구	4.29	381.1	1.9	3.08	3.06	2.05
강남구	4.07	355.5	2.7	2.87	2.32	3.57
송파구	1.65	328.5	1.02	0.61	1.54	0.38
강동구	0.6	283.5	1.03	-0.36	0.25	0.4

군집분석은 각 변수들간의 유사성, 비유사성 정도를 측정하여 개체들을 가까운 거리 순으로 군집화하는 방법이다. 분석에 각 구별 파워엘리트 LQ 지수,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대 합격비율을 모두 고려하여 군집을 분류해 보았다.

세 가지 지표(파워엘리트 LQ지수,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대 합격비율)의 원자료를 표준화하여 군집분석의 변수로 활용하였다. 각 구들을 표준화 변수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군집

표 21.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군집분석

	군집	거리		군집	거리
종로구	2	10.252	마포구	2	6.046
중구	2	13.042	양천구	2	21.864
용산구	2	14.191	강서구	2	15.765
성동구	2	12.054	구로구	2	17.165
광진구	2	22.259	금천구	2	4.790
동대문구	2	3.559	영등포구	2	28.161
중랑구	2	27.648	동작구	2	4.064
성북구	2	29.941	관악구	2	7.545
강북구	2	22.443	서초구	1	26.084
도봉구	2	2.862	강남구	1	1.200
노원구	2	0.814	송파구	1	26.601
은평구	2	4.842	강동구	2	19.462
서대문구	2	1.220			

분석결과 서초, 강남, 송파구가 제1군집, 그 외의 구들이 제2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거리는 개체들의 변수 차이에 따른 거리를 의미하며,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끼리 군집을 형성한 것이다. 즉, 서초, 강남, 송파구가 비슷한 특성으로 분류되어 거리상 서로 가까이 위치하여 군집을 형성하고 그 외의 구들이 또 다른 군집을 형성하였다.

군집평균

표 22.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군집평균

	군집	
	1	2
파워엘리트 LQ지수	3.34	.67
가구 월평균소득(만원)	355.03	264.04
서울대 합격비율(%)	1.87	.68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각 군집의 변수(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들에 대한 평균은 <표 22>의 결과와 같다. 이 결과를 통해 1군집과 2군집 평균값의 편차가 큰 것으로 군집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의 유의성

표 23.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유의확률

	F	유의확률
파워엘리트 LQ지수	48.772	0.000
가구 월평균소득	71.492	0.000
서울대 합격비율	30.105	0.000

군집들이 각 변수들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 유의성을 검정해 보니, 모든 유의수준이 0.0000으로 1% 내에서 모두 유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본 분석의 결과가 유용함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군집분석의 결과를 <그림 15>지도에 나타내어 공간적인 분포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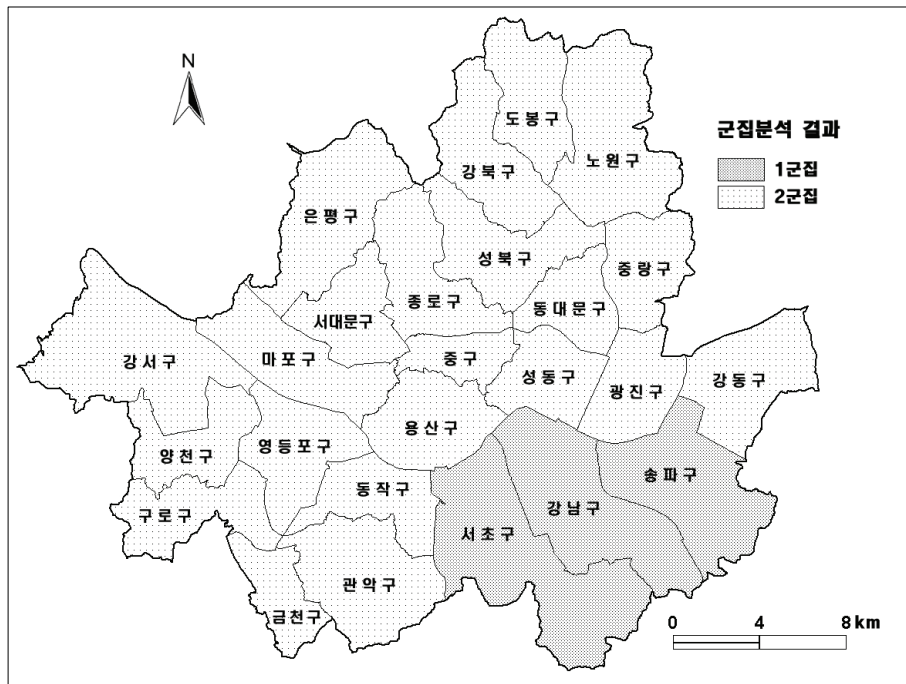


그림 15. LQ지수, 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군집 분포도

서울시 구별 파워엘리트 LQ지수와 가구 월평균소득, 그리고 서울대 합격비율을 전부 고려하여 군집분석한 결과를 지도에 나타낸 결과 서초, 강남, 송파구가 1군집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구들은 2군집에 속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 예상했던 공간의 양분화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3. 양분(兩分)화된 계층 재생산의 사회공간적 구조

1) 양분화된 계층과 공간

양분화된 계층과 그에 관련된 공간분화 현상은 분화현상의 기제만 다를 뿐 아주 오랜 과거부터 있어 왔던 보편적인 현상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계층은 지도층과 그 외의 계층으로 분화되어 왔고 분류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동서양의 도시발달 역사를 통해 볼 때 도시의 공통적인 특징에서 양분화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도시가 그 시대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의 거처라는 점이다. Sjoberg(1960)에 의하면 서구의 전산업도시는 고대, 중세, 근대를 일관하여 소수의 지도층과 다수의 대중으로 구성되는 이원적인 사회구조였다. 이에 따라 도시내부의 발달과 지리적 공간도 신분구조를 반영한 구조였다고 설명한다.¹³⁾

이러한 현상은 동양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조선시대 한성부의 경우도 경복궁, 창덕궁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북촌에는 권문세가들이 거주한 반면, 남촌에는 하급관인이나 현직이 아닌 양반 자손들의 계층이 분화하여 거주했다(윤정섭, 1987).

산업혁명 이후 도시는 생산의 중심지로 변화하여 본격적인 시민사회의 근거지가 되었으나, 도·농이 분리된 사회에서 여전히 지도층의 거주지로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계층의 분화와 거주지의 분화 현상은 급변하는 산업화 과정 초기에는 계층이동의 유동성 때문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사회체제가 안정이 되면서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에 따른 영향으로 거주지 분화가 뚜렷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러한 현상이 양극화 현상과 함

13) 김창석(1999)에서 재인용.

게 부각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받게 되었다.

현대 한국사회의 계층분화와 공간분화에 있어 중심이 되는 기제는 자본이다. 자본은 자본주의 체제를 이행하는 한국사회를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큰 영향력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불균등 교환을 통하여 공간적인 불균등 구조를 형성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각 개인은 자원을 증대시켜 타인에 대해 자율성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하게 되며, 경쟁적이고 불평등한 관계는 영향력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양분화된 구조를 성립시킨다.

이처럼 계층의 분화에 의한 사회적인 구조는 지리적 역사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리적 역사에 포함된 지리적인 사회구조는 가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인 구조를 통해 사회를 분석하는 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2) 계층 재생산의 심화구조

계층 재생산의 심화 논의에 있어 주목되는 부분은 공간이 계층과 지식생산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계층-소득-교육’이라는 순환관계가 공간을 통하여 재생산되고 고착되는 것이다.

계층 재생산의 심화구조에서 도시공간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다시 그 공간이 사회적 재생산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예로 ‘강남’이라는 도시공간이 출현하였고, 강남은 차별적인 교육공간을 형성하였으며, 교육공간으로써 강남은 다시금 사회적 공간의 재생산을 담당하는 심화기제가 되는 것이다.

하비(1996)에 따르면, 자본주의 도시에서 거주지분화는 시장능력을 얻기 위해 요구되는 희귀 자원에 대한 접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육기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은 시장능력의 내부적 이전을 촉진시키고, 전형적으로 이동기회의 제약을 초래한다. 기회들이 구조화됨에 따라 화이트칼라 노동력은 화이트칼라 이웃 속에서 재생산되고, 블루칼라 노동력은 블루칼라 이웃 속에서 재생산 된다. 지역사회 공동체는 생산의 장소에 적합한 노동력이 재생산되는 장소인 것이다.

오호영(2006)은 이러한 공간불평등의 심화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을 특정공간이 포함하고 있는 교육조건이 미치는 외부효과(externalities)라고 설명한다. 즉, 특정 공간에 유사한 교육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살고 유익한 시설과 서비스가 집중되면 교육관련 고급지식과 정보의 유통이 활발해지게 된다고 언급한다. 교육에 대한 차별적 접근기회나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보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장능력을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능력의 세대 간 전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공간과 더불어 계층 재생산의 심화기제가 되는 교육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도 직업적 지위나 계급적 위치, 소득을 얻는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지배권력과 통제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장상수, 2001).

교육의 영향력은 계층 재생산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순환관계에서 역방향으로도 영향을 미쳐 순환관계를 공고히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소득이 교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육도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교육에 대한 투자(소득에 의해 가능한)가 이후의 소득(파워엘리트가 됨으로써)으로 환수되는 재생산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것은 계량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파워엘리트 LQ지수-가구 월평균소득-서울대 합격비율의 영향관계와 상관관계분석 결과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공간과 교육을 통한 계층 재생산의 심화가 문제시 되는 것은 상대지역에 대하여 배타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메시(Massey, 1996)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그 외의 지역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게 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부가 높은 밀도로 특정 공간에 집중됨에 따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증대되고 그 반대로 부유층들은 다른 계층을 타자 또는 위험 계층으로 인식하는 ‘극단의 시대(The Age of Extreme)’가 출현할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통해 계층이 재생산 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소득에 의한 교육성취를 통해 계층이 재생산 되는 것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불평등 논의에 있어 계층 재생산의 문제를 ‘양분(兩分)화’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양분화된 사회구조를 계층의 양분화를 통해 확인하고, 이러한 사회구조가 공간에 투영되어 양분화된 공간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지리학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시한 계량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파워엘리트 LQ지수가 가구 월평균소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파워엘리트의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2. 가구 월평균소득이 서울대 합격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대 합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파워엘리트 LQ지수가 서울대 합격비율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파워엘리트 LQ지수가 높은 지역일수록 서울대 합격비율이 높다.
4. 파워엘리트 LQ지수, 가구 월평균소득, 서울대 합격비율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5. 편상관분석을 통해 소득 변수의 영향이 크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6.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군집분석을 한 결과 계층 특성에 따른 사회적 양분화가 공간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연구의 가정과 예상에 부합하는 구체적 수치가 도출되

어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또한, 계량분석을 통해 연구의 가정에서 상정한 ‘양분화’의 개념이 실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써 궁극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양분화된 사회구조, 공간구조를 검증했다. 또한, 계층분화와 공간의 분화에 있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소득인 것을 도출해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소득-교육-계층’ 순환관계가 계층의 재생산을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구조임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의의는 가정과 결과가 합치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임의적 기준에 따른 계층 분류가 아닌, 보편적 개념인 ‘양분화’를 적용시켜 사회구조와 공간구조를 설명함으로써 현대 한국사회에서도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보편성의 구조를 발견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실제로 사회적 영향을 발휘하는 계층인 파워엘리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파워엘리트 계층과 사회공간구조의 관계를 논의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회계층과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분화와 분포의 정도와 형태를 기술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어떤 사회적 함의와 결과를 갖는지에 대해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현상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라는 바탕 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간을 배제하고 설명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체제 내에서 자본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이 된다.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사회로서 자본과 공간이라는 근본적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구성 요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지 않는 정책들은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며, 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계층과 교육불평등에 관련한 정책논의에 있어 주요한 논쟁거리가 되는 학군제의 실행과 폐지로는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평등

을 이룰 수 없다. 교육불평등의 근원은 학교 밖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기 때문이다. 자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자유경쟁 사회에서 자본과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은 지엽적이고, 일시적이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결국, 교육평등을 위한 평준화제도 존폐 논쟁은 초점이 빗나간 소모적 논쟁에 불과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현상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한 결과 어떤 사회현상도 역사적 보편성의 맥락과 인간 삶의 토대가 되는 공간의 의미를 배제하고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계층 분화에 의한 사회구조 역시 지리적 역사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리적 역사에 포함된 사회구조는 가장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일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파워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한 계층의 재생산 논의에 있어 소득 외의 다른 요인들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집적의 이익이라 볼 수 있는 강남의 파워엘리트 거주지에 대한 공간적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연구에서 특이점으로 나타났던 현상들에 대한 요인분석이 필요하다.

그 동안 주로 사회학의 연구대상이었던 사회불평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리학적 연구는 계층과 관련된 사회공간적 구조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의 사회불평등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계속적인 지리학적 연구는 불평등의 논의 및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아가 사회현상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제적인 모색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C. W. 밀스, 1979, 파워엘리트, 한길사
- T. B. 보토모어, 엘리트와 사회, 1976, 박영사
- 강준만, 1996, 서울대의 나라, 개마고원
- 고형일, 1996, 근대화, 정보화 그리고 한국교육, 교육과학사, pp.23-35
- 권용우 외, 1998, 도시의 이해, 박영사
- 김부태, 1995, 한국 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pp.11-26
- 김상현, 2004, 대한민국 강남특별시, 위즈덤하우스
- 김왕배, 2000, 도시, 공간, 생활세계, 한울
- 김인, 1995, 도시지리학원론, 범문사
- 데이비드 하비, 1996, 도시의 정치경제학, 초의수 옮김, 한울, p.156
- 루이스 메난드, 2001, 프래그머티즘의 길잡이, 김동식 외 옮김, 철학과 현실사, pp.273-274
- 마틴 N. 마거, 1990, 엘리트와 대중, 인간사랑
- 방하남 외, 2004, 현대 한국사회의 불평등, 한울, p.43
- 보토모어, T. B., 1976, 엘리트와 사회, 진덕규 옮김, 박영사
- 부르디외, 1995, 상징폭력과 문화재생산, 정일준 옮김, 새물결, pp.45-57
- 서울특별시 교육청, 2006, 서울교육통계연보,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2006, 서울서베이, p.175
- 손경목, 2003, 서울도시계획이야기 3, 한울, pp.344-355
- 신광영,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pp.160-161

- 양춘 외, 2001, 현대 한국사회의 계층구조, 집문당, pp.100-140
- 양춘, 1980, 직업과 계층구조의 변동, 한국사회학회 편, 70년대 한국사회, 평민사, pp.73-103
- 유팔무 외,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소화, pp.42-43
- 윤정섭, 1987, 도시계획사개론, 문운당
- 장상수, 2001, 한국의 사회이동, 서울대학교 출판부, p.23
- 중앙일보 탐사기획부문 이규연 외, 2006,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황금나침반
- 중앙일보사, 1994, 6만의 파워엘리트, 중앙일보사
- 차종천 외, 2004,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천, 백산서당, pp.22-23
- 한국도시연구소, 2006, 한국 사회의 신빈곤, 한울, pp.209-244
- 한울공간환경학회, 2000, 공간의 정치경제학, 아카넷, pp.443-446

2. 국내 논문

- 강희돈, 1988,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근, 1999, “교육성취에 대한 가족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제9권 제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1-23
- 김경근, 2000,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아동의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21-40.
- 김기석, 2004, “공교육과 불평등의 대물림: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연구의 검토”, 교육과비평 제17호, pp. 57-71.
- 김종엽, 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제 59호, pp. 60-61.

- 김창석, 1999, “파워엘리트 주거입지분포로 본 서울의 사회공간구조”, 도시과학논총, 제25권, pp.71-87
- 김창석, 2002, “서울시 상류계층(파워엘리트)의 주거지역 분포특성과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7권 제5호, pp.65-85
- 김천기, 2005, “평준화제도의 불평등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거주지 중심 학교배정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 65-88.
- 도경선, 1994, “서울시의 사회계층별 거주지분화에 관한 연구”, 지리학논총, 제23호, pp.25-48
- 서태열, 1987, “서울시 고등학교의 분포와 학군에 관한 연구”, 지리교육논집, 제18호, pp.1-21.
- 성기선, 2003, “서울시 고등학교 학군효과 분석 연구: 8학군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 151-166.
- 성열관, 2005, “거주지 분화와 교육격차: 미국의 현실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제15권 제1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 139-161.
- 손준중, 2004, “교육공간으로서 강남읽기: 교육정책에 주는 함의,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교육사회학회, pp. 107-131.
- 송명규, 1992, “지방공공재가 소득계층별 주거지 분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병철, 2005,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과의 불균등성 평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제1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 오호영, 2006, 소득계층과 학업성취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제2차 학술대회 발표논문.
- 윤인진, 1997, “서울시 사회계층별 거주지 분화 형태와 사회적 함의”, 서울학연구 10, pp.229-270

- 이기석, 1980, “대도시 거주지 분화와 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시와
촌락연구, 보진재, pp.128-172
- 이숙임, 1987, 서울시 거주지 공간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철호, 2004, “선발의 교육사회학적 의미: 입시, 불평등의 제도화”, 교육비
평 제17호, pp. 8~56.
- 임석희, 이용우, 2002,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
제8권 제2호, pp.270-279
- 조명래, 2004, 신상류층의 방주(方舟)로서의 강남, 황해문화, 제42호, p.34
- 최은영, 2004, 서울의 거주지 분리 심화와 교육환경의 차별화, 서울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두승, 1992, 중산층의 성장과 사회변동, 한국사회학회·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pp.255-276
- 홍인옥, 1997, 서울시 단독주택지역의 변화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 국외 논문

- Coleman, J. S., 1968, The Concept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Harvard Educational Review, 38, pp.7-37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95-120.
- Erikson, R. & J. Jonsson, 1996, Can Educated Be Equalized?: the
Swedish ca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Westview Press.

- Hauser, R. M., 1976, High School Effect on Achievement, Schooling and Achievement in American Society, Academic Press.
- Jencks, 1972, Inequality, Harper Torchbooks.
- Massey, D. S., 1996, The Age of Extremes: Concentrated Affluence and Pover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Demography, 33(4), pp.395-412.
- Soja, E., 1985, The Spatiality of Social Life: Toward a Transformative Rethorization, D. Gregory and J. Urry, *ibid.*
- Johnston, R. J., 1984, Residential Segregation, the State and Constitutional Conflict in American Urban Areas,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Special Publication, No.7, London: Academic Press.

4. 웹사이트(website)

서울시 <http://www.seoul.go.kr>

서울시 교육청 <http://www.sen.go.kr/>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통계청 <http://www.nso.go.kr>

ABSTRACT

Geographical study on Income and Education Inequality in Seoul

-Focusing on Power elite class reproduction
discussion-

Park, Hae Young

Major in Geograph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In recent years, social inequality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for discussion in Korean society. According to various studies and research on inequality, inequality is seen as an issue which deters social unity by the members of society.

Absolute equality does not exist in any society. However, the fact that socio-economic status is secured not by one's power and that one's life and social class is defined through the existing socio-economic status of one's parents can be found to be of serious consequence, as it shows that the modern democratic society is not

much different than the status system society of the past traditional era. In addition to this, social inequality forms a division between classes and triggers social conflicts, weakening the mediating function within the society and thus social inequality has become a major issue for discussion.

Social inequality can be studied from various approaches,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income disparity and educational inequality problems and inquires into 'the socio-spatial structure of class reproduction'.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following income and educational inequality relationships, with Seoul area as the object of study,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social class is reproduced. A geographical consideration of the spatial structure 'bi-segmentation pattern' being formed by the reflection of the social class bi-segmentation pattern was also executed.

Analysis results conforming to the assumption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Power elite LQ(Location Quotient) index impacts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greatly. Consequently, the study was able to conclude that areas with a high distribution ratio of the power elite also had a high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2. The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strongly influences the ratio of acceptance to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It can be seen that areas with higher income has a higher ratio of acceptance to SNU.

3. The power elite LQ index impact to SNU acceptance ratio is strong. Thus, areas with higher power elite LQ indexes have a higher SNU acceptance ratio.
4.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power elite LQ index,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and SNU acceptance ratio.
5. Concluded that the income variable influence is high by using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method.
6. Cluster analysis in which all variables were considered shows results that the segmentation pattern following the class characteristics can also be confirmed spatially.

Through this study, it has been confirmed that no social phenomenon can be explained with the exclusion of the context of historical universality and significance of the space that is the foundation of everyday life.

Key Words: power elite, bi-segmentation pattern, socio-spatial structure, class reproduction, residential segregation, income inequality, educational inequality

부 록

고교별 소재지 및 서울대 합격자 수

학교수	학교명	소재지	합격인원(명)
1	가락고등학교	송파구	9
2	강동고등학교	강동구	1
3	강서고등학교	양천구	10
4	개포고등학교	강남구	14
5	건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광진구	3
6	경기고등학교	강남구	17
7	경기여자고등학교	강남구	7
8	경동고등학교	성북구	4
9	경문고등학교	동작구	1
10	경북고등학교	종로구	9
11	경북여자고등학교	강서구	2
12	경성고등학교	마포구	4
13	경신고등학교	종로구	3
14	경인고등학교	구로구	1
15	경일고등학교	성동구	0
16	경희고등학교	동대문구	1
17	경희여자고등학교	동대문구	3
18	계성여자고등학교	중구	1
19	고려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성북구	1
20	고척고등학교	구로구	3
21	공항공고등학교	강서구	0
22	관악고등학교	영등포구	2
23	광남고등학교	광진구	6
24	광문고등학교	강동구	7
25	광성고등학교	마포구	3
26	광신고등학교	관악구	4
27	광양고등학교	광진구	2
28	광영고등학교	양천구	3
29	광영여자고등학교	양천구	3
30	구로고등학교	구로구	3
31	구일고등학교	구로구	6
32	구정고등학교	강남구	11
33	금옥여자고등학교	양천구	2
34	금천고등학교	금천구	2
35	남강고등학교	관악구	3
36	노원고등학교	노원구	4
37	누원고등학교	도봉구	2
38	단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강남구	15
39	당곡고등학교	관악구	1
40	대광고등학교	동대문구	4
41	대성고등학교	은평구	6
42	대신고등학교	종로구	2
43	대영고등학교	영등포구	1
44	대원고등학교	광진구	8
45	대원여자고등학교	광진구	5
46	대일고등학교	강서구	9
47	대진고등학교	노원구	9

48	대진여자고등학교	노원구	3
49	덕성여자고등학교	종로구	0
50	덕원여자고등학교	강서구	4
51	도봉고등학교	도봉구	0
52	독산고등학교	금천구	1
53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동대문구	2
54	동국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광진구	2
55	동덕여자고등학교	서초구	3
56	동명여자고등학교	은평구	0
57	동북고등학교	강동구	10
58	동성고등학교	종로구	8
59	동일여자고등학교	금천구	1
60	동작고등학교	동작구	2
61	둔촌고등학교	강동구	3
62	등촌고등학교	강서구	0
63	마포고등학교	강서구	9
64	면목고등학교	종량구	3
65	명덕고등학교	강서구	10
66	명덕여자고등학교	강서구	3
67	명일여자고등학교	강동구	4
68	명지고등학교	서대문구	6
69	목동고등학교	양천구	5
70	무학여자고등학교	성동구	1
71	문영여자고등학교	관악구	2
72	문일고등학교	금천구	0
73	미림여자고등학교	관악구	4
74	반포고등학교	서초구	16
75	방산고등학교	송파구	6
76	배명고등학교	송파구	4
77	배문고등학교	용산구	7
78	배재고등학교	강동구	8
79	배화여자고등학교	종로구	1
80	백암고등학교	양천구	2
81	보성고등학교	송파구	13
82	보성여자고등학교	용산구	0
83	불암고등학교	노원구	0
84	삼성고등학교	관악구	4
85	상계고등학교	노원구	4
86	상명고등학교	노원구	1
87	상명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종로구	3
88	상문고등학교	서초구	10
89	상일여자고등학교	강동구	2
90	서라벌고등학교	노원구	9
91	서문여자고등학교	서초구	8
92	서울고등학교	서초구	6
93	서울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성북구	5
94	세종고등학교	강남구	1
95	서울여자고등학교	마포구	0
96	서초고등학교	서초구	5
97	석관고등학교	성북구	2
98	선덕고등학교	도봉구	4
99	선유고등학교	영등포구	0

100	선일여자고등학교	은평구	5
101	선정고등학교	은평구	3
102	성남고등학교	동작구	9
103	성동고등학교	종구	1
104	성보고등학교	관악구	2
105	성신여자고등학교	성북구	1
106	성심여자고등학교	용산구	1
107	세현고등학교	강서구	0
108	세화고등학교	서초구	17
109	세화여자고등학교	서초구	9
110	송곡고등학교	종량구	1
111	송곡여자고등학교	종량구	0
112	수도여자고등학교	동작구	2
113	수락고등학교	노원구	1
114	숙명여자고등학교	강남구	8
115	송문고등학교	마포구	2
116	송실고등학교	은평구	10
117	송의여자고등학교	종구	3
118	신광여자고등학교	용산구	0
119	신림고등학교	관악구	3
120	신목고등학교	양천구	7
121	신서고등학교	양천구	0
122	신일고등학교	강북구	7
123	신현고등학교	종량구	0
124	양재고등학교	서초구	13
125	양정고등학교	양천구	9
126	양천고등학교	양천구	4
127	언남고등학교	서초구	7
128	여의도고등학교	영등포구	5
129	여의도여자고등학교	영등포구	0
130	염광고등학교	노원구	0
131	영동고등학교	강남구	23
132	영동일고등학교	송파구	3
133	영등포고등학교	동작구	2
134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영등포구	0
135	영락고등학교	관악구	2
136	영신고등학교	영등포구	5
137	영신여자고등학교	노원구	3
138	영일고등학교	강서구	8
139	영파여자고등학교	송파구	2
140	영훈고등학교	강북구	2
141	예일여자고등학교	은평구	3
142	오금고등학교	송파구	3
143	오류고등학교	구로구	1
144	오산고등학교	용산구	2
145	용문고등학교	성북구	3
146	용산고등학교	용산구	14
147	용화여자고등학교	노원구	3
148	우신고등학교	구로구	5
149	월계고등학교	노원구	0
150	은광여자고등학교	강남구	10
151	이화여자고등학교	종구	2

152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서대문구	5
153	인창고등학교	서대문구	4
154	인현고등학교	관악구	0
155	자양고등학교	광진구	3
156	자운고등학교	도봉구	0
157	잠신고등학교	송파구	3
158	잠실고등학교	송파구	6
159	잠실여자고등학교	송파구	5
160	장충고등학교	종구	0
161	장훈고등학교	영등포구	1
162	재현고등학교	노원구	3
163	정신여자고등학교	송파구	4
164	정의여자고등학교	도봉구	3
165	중경고등학교	용산구	4
166	중동고등학교	강남구	19
167	중산고등학교	강남구	18
168	중앙고등학교	종로구	1
169	중앙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강남구	11
170	중앙여자고등학교	서대문구	1
171	중화고등학교	중랑구	0
172	진명여자고등학교	양천구	4
173	진선여자고등학교	강남구	4
174	창덕여자고등학교	송파구	8
175	창동고등학교	도봉구	2
176	창문여자고등학교	강북구	2
177	청담고등학교	강남구	9
178	청량고등학교	동대문구	4
179	청원고등학교	노원구	8
180	청원여자고등학교	노원구	2
181	총암고등학교	은평구	3
182	태릉고등학교	중랑구	3
183	풍문여자고등학교	종로구	2
184	한가람고등학교	양천구	6
185	한광고등학교	강서구	0
186	한국삼육고등학교	노원구	0
187	한서고등학교	강서구	2
188	한성고등학교	서대문구	5
189	한성여자고등학교	성북구	1
190	한양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성동구	1
191	한영고등학교	강동구	12
192	현대고등학교	강남구	19
193	혜성여자고등학교	노원구	1
194	혜원여자고등학교	중랑구	2
195	혜화여자고등학교	강북구	3
196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성북구	0
197	홍익대학교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마포구	1
198	화곡고등학교	강서구	5
199	환일고등학교	종구	4
200	휘경여자고등학교	동대문구	3
201	휘문고등학교	강남구	25
	서울시 총계		882

< 출처: 서울시교육청, 중앙일보 2006. 9. 7. 기사 자료 >